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용접조각 표현기법을 이용한 작품 연구

-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김 태 양

용접조각 표현기법을 이용한 작품 연구
-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ork Using Welded Sculpture Expression
Technique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Artwork -

2023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김 태 양

용접조각 표현기법을 이용한 작품 연구

-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의 현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김 태 양

김태양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유 섭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문 형 선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의 현 

2022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목차	iii
작품목차	v
Abstarct	v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3절 연구의 흐름도	3
제2장 이론적 고찰	4
제1절 조각 개념	4
제2절 용접조각의 이해	5
제3절 용접조각 작품 세계	7
제3장 용접조각 표현기법	25
제1절 오브제	25
제2절 앓상블라주	31
제3절 열변형식기법	34

제4절 단조 기법	35
제5절 그로테스크 기법	37
제4장 작품제작 및 해설	39
제1절 작품계획	39
제2절 제작과정	41
제3절 작품해설	46
제5장 결론	70
【참고문헌】	72
【국문초록】	77

표 목 차

[표-1] 김정숙 작품	8
[표-2] 송영수 작품	9
[표-3] 오종욱 작품	11
[표-4] 박종배 작품	12
[표-5] 박석원 작품	13
[표-6] 국내작가 비교	15
[표-7] 피카소 작품	17
[표-8] 훌리오 곤잘레스 작품	18
[표-9] 세자르 발다치니 작품	19
[표-10] 데이비드 스미스 작품	21
[표-11] 안토니 카로 작품	22
[표-12] 국외작가 비교	23
[표-13] 피카소 콜라주 작품	26
[표-14] 마르셀 뒤샹 작품	27
[표-15] 클레스 올덴버그 작품	29
[표-16] 에릭 송 작품	30
[표-17] 피카소와 뒤샹의 앗상블라주 작품	32
[표-18] 존 체임벌린 작품	33
[표-19] 엄익훈 작품	34
[표-20] 최기석 작품	36

[표-21] 이성구 작품	38
[표-22] 빼대 제작	42
[표-23] 면 채우기	43
[표-24] 오브제와 앳상블라주	44
[표-25] 열변형식 기법과 그로테스크 기법	45
[표-26] longing for 상세이미지	47
[표-27] drifting 상세이미지	50
[표-28] resurge 상세이미지	53
[표-29] upstream 상세이미지	56
[표-30] challenging 상세이미지	59
[표-31] green wave 상세이미지	62
[표-32] dimension gate 상세이미지	65
[표-33] whirlpool 상세이미지	68

작 품 목 차

[작품 1] longing for	46
[작품 2] drifting	49
[작품 3] resurge	52
[작품 4] upstream	55
[작품 5] challenging	58
[작품 6] green wave	61
[작품 7] dimension gate	64
[작품 8] whirlpool	67

ABSTRACT

A Study on the Work Using Welded Sculpture Expression Technique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Artwork -

Kim Tae-Yang

Advisor: Prof. Cho, Eui-Hyun

Department of Fine Ar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give symbolic mean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by sublimating waste scrap into works,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of welding sculpture.

In order to explore these expression techniques of welded sculptures, the expression techniques of researchers' works were sough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art philosophy, the background of the time for the formation of works, and the expression techniques of domestic and foreign artists. In particular, in the expression technique, an object, an ensemble, a forging technique, a thermal deformation technique, and a grotesque technique were explored. However, although the object and the ensemble are trends that arise from the foundation of traditional flat painting, we have found that they are involved in various fields beyond pure art. Welded sculptures could be understood by exploring the process from modern art to modern art. The contents of this are as follows.

I could understand the type of welding used today, the birth of domestic and foreign welding sculptures,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nd the latent sensibility of the artist's inner side. It was found that the welding sculpture expression techniqu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pressing the artists' emotions.

As described above, it can be seen that objects and ensemble are related to various trends in expression techniqu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se

weld sculptures, the concept of the meaning inherent in the work was set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symbolism of the work was produced based on a mythological background. The forging technique and grotesque technique were used as the main expression techniques in the creative work. In particular, the forging technique was suitable for expressing the curved beauty of the work and the artist's inner side. And the grotesque technique was a rich and ideal technique for embodying dreamy, heterogeneous, and spontaneous feelings into works.

The differenc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ademic implication is that the expression technique of the weld sculpture was attempted by combining the weld sculpture and the pure art technique. Second, it attempted to express the symbo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using welding sculptures and to a sculpture that modern people can awaken.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expression technique derived from painting is used for welding sculpture by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such as accessibility, utility, and solidity of ir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e single accessibility of iron rather than the accessibility of various materials, corrosion caused by the oxidation of iron, and difficulty in transporting due to weight.

It is hoped that a new perspective on the expression technique of weld sculpture and various attempts will be experimentally sought to expand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which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basic knowledge for future scholars to explore the source of weld sculpture. In the future, if the work is produced by converging media, holograms, and AI beyond the iron material, it is expected to be a new interpretation of the weld sculptur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용접조각의 태동은 6·25전쟁 이후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철은 전통적인 조각 재료를 넘어선 현대적인 재료였을 뿐 아니라 전쟁 직후로 주변에서 용이하게 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철은 자유로운 추상표현이 가능하였다. 용접조각은 즉흥적 표현과 작가들의 감정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재료였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작품이 가지는 ‘상징성’을 표현하기에 좋은 재료라고 여긴다.

한편 폐고철들을 이용한 작품 창작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 쓰다 남은 고철들은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기도 하지만 오브제나 앳상블라주를 이용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용이하다. 더불어 순수미술 창작의 소재로써 부식되거나 즉흥적인 일그러짐이 있는 것은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수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고철들은 산업 쓰레기로 분류되어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유익한 점이 있다.

이러한 유익한 점을 토대로 모험적, 실험적 용접조각 질감 표현의 시도에 집중했다. 철이라는 소재는 물성 고유의 물질감과 무게감이 있어서 작품의 완성도를 향상하는 도움이 되며, 버려진 폐고철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새로운 탄생의 작품으로 변화시키기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한다.

용접조각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이순(2004, 2005), 김은정(2009), 김이순(2011), 김이순(2020), 배승수(2020) 등은 20년대 초반에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김이순(2004, 2005, 2011)의 선행연구에서는 당시 한국전쟁의 시기에 따른 시대상과 작가들의 작품들을 탐색하고 국내·외 작가들을 비교하여 용접조각이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김은정(2009)의 선행연구에서는 용접조각의 기본적인 배경과 국내외의 대표적인 용접작가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용접조각의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용접조각의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다양한 재질감 표현에 주목하게 했다. 따라서 선행연구 김은정(2009)은 용접조각의 표현기법을

앗상블라주만 한정하여 탐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순수미술에 접목하여 오브제 기법, 열변형식 기법, 단조기법, 그로테스크 기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접조각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확장하여 풍부한 질감을 표현하여 창작하는 것은 순수미술 용접조각에 있어서 작품의 완성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용접조각의 다양한 표현기법 확장과 폐고철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환경보호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용접조각의 다양한 표현기법 확장과 폐고철을 이용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접조각에 대한 개념과 시대적 변천을 근대와 현대로 분류하여 탐색한다.

더불어 용접조각 작품을 국내 작가와 국외 작가의 작품을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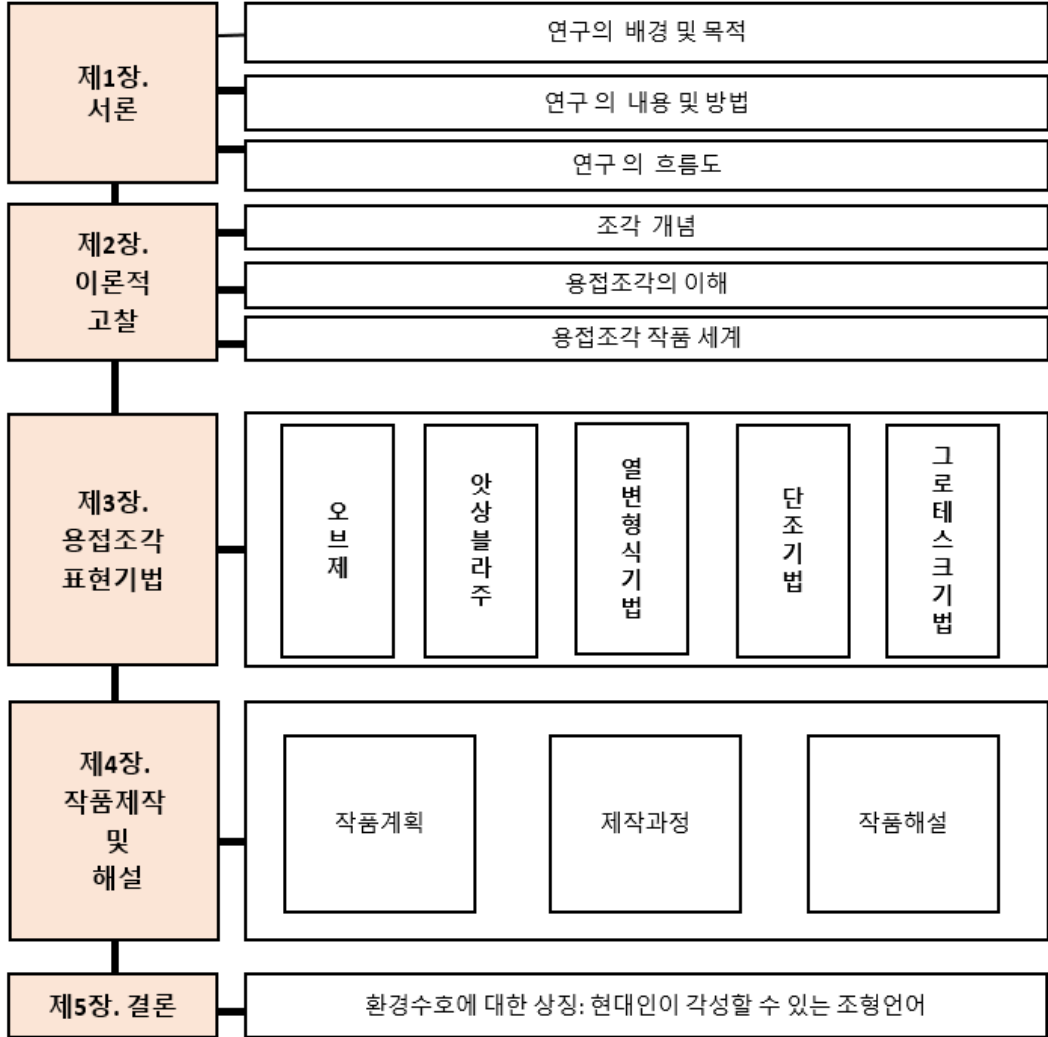
둘째, 용접조각의 표현기법으로 오브제, 앗상블라주, 열변형식 기법, 단조 기법, 그로테스크 기법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한다.

셋째, 용접조각을 이용한 해양생물인 해마, 가오리, 상어, 바다전갈, 해룡 등을 반추상으로 구상하여 작품 창작을 한다.

넷째, 이론적 고찰 및 작품 창작을 통해 결론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조각 개념

1879년, 우리나라 미술 장르에서 처음으로 ‘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883년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에서는 ‘조각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조각’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미술 장르적 개념으로 ‘sculpture’로 통용되었다. 그리고 현재 미술 분야에서 입체와 평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조각과 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

조각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조각(彫刻)은 미술 감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만들어진 입체 작품”을 뜻한다.

조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조소적인 수단으로는 브론즈상(像), 테라코타상(terracotta像), 도상(陶像), 건칠상(乾漆像), 시멘트 조상(ement 彫像)을 말하며, 둘째, 조각적인 수단은 목조상(木彫像), 석조상(石彫像)을 말한다. 그리고 셋째, 구조적인 수단으로 금속조각(金屬彫刻), 수지조각(樹脂彫刻), 글라스 조각(glass 彫刻), 군적조각(群的彫刻)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각이 예술로서의 본질을 위키백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조각 예술의 조상(造像)은 입체(二次元)로서의 엄숙함을 다른 재료로 이입표현(移入表現) 하는 것인데, 작자의 심상을 소재에도 이행시키는 기술과 조형적인 소질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생명감의 표현행위이다.

그 행위(表現活動) 중에는 입체를 구축(構築)하는 면이나 능선이 상호 간에 서로 작용하여 균형감이나 동세감(動勢感)을 만들고, 양피 전체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내포하는 어떠한 종류의 긴장감을 실감케 하는 것”²⁾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IT산업 발달로 인하여 매체 확장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양식의 해체가 급속히 전개되어 조각 장르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1) 김이순. “한국 근현대미술에서 ‘조각’ 개념과 그 전개”, 2011,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12 No.22, p.37~46

2)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A%B0%81> (2021.12.21 검색)

조각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조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나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조각에 대한 정의는 “조각은 감각적인 것 자체, 즉 질료를 공간적인 형태에 따라 형상화하기 때문에 건축과 같은 측면을 지닌다. 하지만 조각의 형상은 단순히 외적인 자연이자 환경으로서 정신에 봉사하는 건축의 규정에서 벗어나 조각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³⁾고 했다. 그리고 안토니 카로(Anthony Caro, 1924~2013)의 조각에 대한 개념은 “조각은 더이상 장식품이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 이어야 한다.”고 했다.⁴⁾

따라서 연구자가 고찰한 현대조각은 첨단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융·복합한 산물로 정의된다. 더불어 조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예술·조각가들의 재료에 대한 관점이 변하여 범위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용접조각의 이해

한국에서 용접조각에 대한 태동은 6·25전쟁 이후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미술작품 방향을 실험적으로 모색하면서 용접기법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 용접조각이 성행한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인 재료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재료로 사실적인 표현방식보다는 자유로운 추상적인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단단한 철을 강력한 불로 녹이는 점이 젊은 작가의 기질이나 감성에 적합했다. 그리고 표현성에 있어서 첫째,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수정이 가능하고 둘째, 조형 형태를 자유로이 제작할 수 있으며 셋째, 무엇보다도 작가의 감정을 반영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컸을 것이다. 이렇듯 용접조각 작품이 ‘상징성과 표현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로서 부각되었다.

국내 용접조각 표현기법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점은 1960년대로 간주할 수 있다. 작가 작품들의 흐름은 자연의 형태를 단순화하거나 순수조형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또한 재료의 접근성이 전후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아 주변에 즐비했던 철의 파편들, 드럼통 그리고 고물상이나 철공소에서 고철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작품을 제작하기에 용이하였다.

3) Hegel, George W.F. 두행숙 옮김. 『헤겔의 미학강의 3』, 은행나무, 2010

4) 정나영. “안토니 카로의 조각에 나타난 공간 개념 연구”, 2012,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용접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접합 부분을 용융 또는 반용융 상태로 하고 여기에 용가재(용접봉)를 첨가하여 접합하는 방법”이다.⁵⁾

배승수(2020)는 용접의 종류를 크게 전기, 가스, 저항, 특수용접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용접의 종류를 전기용접, CO₂ 용접, 알곤용접, 산소용접, 스포트 용접 등 5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용접의 종류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전기용접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접으로 전기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용접 봉을 녹이면서 철판에 붙이는 용접방식이다. 얇은 판을 용접하는 저항용접과 두꺼운 철판을 녹일 때 쓰는 아크용접 등이 있다. 전기용접은 철을 녹이는 용접방식으로 용융점이 1500도 이상이며 아크가 발생 시에는 300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한다.
- (2) CO₂용접은 전기용접과 같은 방식이나 용접 와이어를 이용한 용접이다. 토치에 달린 노즐에서 지속적인 와이어가 공급되고 동시에 CO₂가스가 배출되면서 용접을 빠르게 할 수 있다. CO₂가스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쇠물에 기포가 발생하거나 용접력이 떨어지게 된다. CO₂용접은 빛이 강하기 때문에 차광면을 반드시 착용하고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다.
- (3) 알곤용접은 텅스텐 봉을 이용한 열을 일으켜 철,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을 접합시킬 수 있다. 토치에 달린 노즐의 중심에 텅스텐 봉을 고정한다. 용접 시에 빛이 강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 (4) 산소용접은 저온과 고온에서 용접을 할 수 있다. 산소와 LPG 가스를 이용하여 저온용접을 하며 파이프 등을 용접할 수 있다. 산용용접은 용접을 할 재료를 열을 주고 용정봉을 용접부위에 덧붙이는 방식이다. 납땜과 비슷한 방식이며 얇은 철판을 용접할 때에 사용하며 모재가 녹기 전까지 열을 충분히 가해주고 전용용접봉을 이용한다.

5) 최용선. “용접조각 표현기법 연구 :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2006, 흥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스포트 용접은 얇은 철판을 접합할 때 사용하는 용접이다. 용접할 두 재료를 겹치고 양 끝에 전극봉으로 압력을 주고 눌러주면 철판과 철판 사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겹쳐진 부분이 녹게 되어 붙는다. 스포트 용접은 자동차 생산에서 많이 사용된다.⁶⁾

제3절 용접조각 작품 세계

용접조각 작품에 대한 고찰은 국내 용접조각 작가와 국외 용접조각 작가의 작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용접조각 작가로는 김정숙, 송영수, 오종욱, 박종배, 박석원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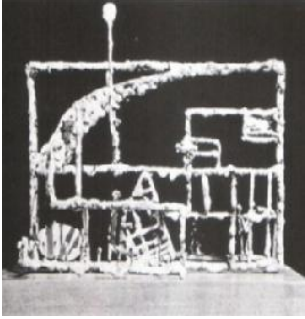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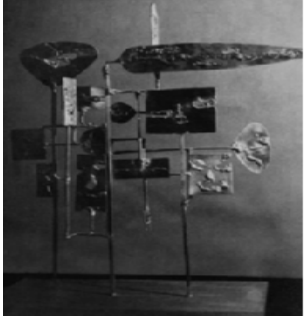

김정숙(1917~1991)은 국내 최초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조각가였다. 1950년대에 유행하던 용접조각을 크랜브룩에서 공부하여 유학 후에는 여성으로 최초의 조각전공 교수가 되었으며 국내에 철을 이용한 용접조각을 도입한 작가이다. 김정숙의 용접조각 작품으로는 <금속용접 습작, 1955>과 <형태구성, 1956>, <브론즈를 씌운 선과 색유리, 1956>가 있다.

1950년대의 한국 조각의 교육은 흙으로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석고가 주된 재료로 사용되었다. 김정숙은 전통적인 재료를 벗어나 용접조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박종배는 김정숙의 작품 <금속용접 습작>과 같은 작품을 선과 공간을 중시하는 이브람 라소(Ibram Lassaw, 1913~2003)의 용접조각을 연상시킨다고 회상하였다.⁷⁾

6) <https://catcom.tistory.com/126> (2022.11.19 검색)

7) 김이순. “1950-1960년대 용접조각”, 200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Vol.18, p.67~94(28 pages)

[표-1] 김정숙 작품

주제	금속용접 습작, 1955 ¹⁾	형태구성, 1956 ²⁾	브론즈를 씌운 선과 색유리, 1956 ³⁾
작품			
사이즈	소재불명	주석, 소재불명	동 용접, 유리 84.5 x 34.5 x 30 (cm)

위 [표-1]의 본 연구자가 보는 관점의 <금속용접 습작> 작품은 칸딘스키의 <Composition VIII, 1923> 작품이 연상되며 삼각형과 선·면의 구성은 기하학, 추상적 작품으로 해석된다. 이 작품은 마치 자연과 마을이라는 공간 조형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멀리 보이는 원근감 표현이며 가로지르는 곡선은 해안선을 나타내며 오른쪽 중앙은 갈매기가 나는 듯한 이미지가 연상된다. 김정숙 작가의 용접 표현기법은 아크용접으로 가장 기본적인 표현기법과 단순한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형태구성> 작품은 <금속용접 습작>과 같은 용접조각에 있어서 기본적인 표현방식으로 브레이징 기법⁸⁾을 사용하였다. 즉, 철사로 건축적인 형태를 만들고, 뼈대와 철선 표면에 용접으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철의 거친 재질감을 주어 제작하였다.⁹⁾

김정숙의 철을 이용한 초기 작품 <형태구성>은 몬드리안의 선과 면을 연상하게 한다. 여러 구성의 조합은 자유로운 우연성과 즉흥성 그리고 용접에서만 느낄 수 있는 투박한 질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박함은 한국의 정서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진다. 여러 형태에서 보이는 면의 구성과 방향성에서 주는 입체감은 그 시대에 트렌드로 여겨진다. 그리고 구성적인 면에서는 피카소의 작품

8) 두 개의 재료를 비교적 용융점이 낮은 합금을 사이에 놓고 가열하여 접합하는 것. 이때 합금 접합제가 녹도록 충분히 가열하되 모재는 녹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김이순.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전후의 용접조각”, 2006, 대한용접접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정원의 여인, 1930>이 연상된다. 그러나 피카소의 작품에서는 오브제를 쓴 반면에 김정숙은 얇은 철판에 그로테스크한 재질감을 입혀 추상적으로 이해되는 점이 상이하다.

작품 <브론즈를 씌운 선과 색유리>는 중앙에 있는 원자폭탄의 탄두를 감싸고 있는 방사능 위험 표시가 연상된다. 이 작품 제작이 1950년대라는 점으로 보면 당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그 후 나타난 참혹한 전쟁의 고통을 표현한 듯하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관조했을 때 촛불과 같이 보이며 또한 세 개의 발을 만들어 지탱시키는 것을 보면 아직 발사되기 전의 탄두의 모습을 표현한 듯 보인다. 작가는 전쟁과 핵 투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용접조각에 있어서 대표적인 조각가인 송영수는 1957년 <국전>에 작품 <호, 1957>라는 새의 형상을 변형시켜 출품하였다. 작품 <새, 1958>에서는 돌이나 나무 같은 전통 재료로는 표현에 제한이 있는 조형을 당시에는 철이라는 신재료를 이용하여 끝이 뾰족한 3개의 다리로 새의 몸을 지탱하는 형태를 제작하였다. 이후 <핵의 공포, 1959>라는 작품에서부터 송영수는 철의 날카로운 성질을 보여주는 작품을 제작했고 새로운 조형 요소를 자신의 언어로 발전시킨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표-2] 송영수 작품

주제	호, 1957 ⁴⁾	새, 1969 ⁵⁾	핵의 공포, 1959 ⁶⁾
작품			
사이즈	철, 141 × 23 × 17 (cm), 개인소장	철, 112 × 20 × 20 (cm), 개인소장	철, 소재불명

위 [표 - 2]의 송영수의 작품 <호>에서 ‘호’는 ‘새벽’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작품의 윗부분에는 초승달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새가 보이고 초승달을 향해 보고 있는 조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새가 다가오는 새벽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었다. 이러한 구성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새) 희망을 잃지 않고 평화(새벽)를 꿈꾸게 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작품 <새>는 송영수가 드로잉 스케치에 써놓은 ‘싸우다 죽은 새’라는 메모에 남겨둔 것처럼 앙상한 새가 목이 구부러진 채 긴 목을 축 늘어뜨리고 입을 벌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새의 모습은 전쟁 때문에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지친 사람들과 자신의 자화상으로 보인다. 가늘고 부러질 듯한 긴 다리와 앙상한 뼈와 같은 표현방식은 오히려 강한 이미지의 뾰족은 감정에 예리하게 파고든다. 아름다운 새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상징으로 다가온다. 작가가 보고 있는 세상의 척박함, 생의 처절함이 당대 시대를 새의 형상으로 잘 드러나 보인다.




작품 <핵의 공포>는 다테하타 가쿠조(1919~)의 작품 <핵, 1956>이 연상되는 작품이다. 그러나 두 작품은 전혀 다른 맥락의 작품으로 해석된다. 다테하타는 핵전쟁을 직접 경험하였으나 공간 조형에 입각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반면에 송영수는 핵무기의 공포감을 날카롭고 단단한 철의 성질을 살려 표현하여 작품에서 서늘한 느낌마저 든다. 좌대를 핵탄두 모양으로 제작하여 작품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핵탄두 위의 빛과 같이 생긴 조형성은 핵이 터진 후 생기는 버섯구름과 섬광처럼 보인다.

위와 같은 세 작품은 송영수 작가가 그의 비문에 새겨진 ‘피 없는 돌에 생명을 주고 거친 쇠붙이에 아름다운 영혼을 깃들이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핵전쟁에 대한 감정은 오종욱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종욱은 작품 <원자시대 사람들, 1964>에서 고철을 이용하여 파괴된 로봇 같은 형상을 표현했다. 전후의 황량한 상황을 불규칙하게 해석한 것이다. 또한 <어느 금요일의 변신, 1963>이나 <공동, 1964> 두 작품에서도 모두 불규칙적이고 거칠게 용접하여 황폐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¹⁰⁾

10) 김이순(2006). op.cit., p.82

[표 - 3] 오종욱 작품

주제	원자시대 사람들, 1964 ⁷⁾	제2의 미망인, 1968 ⁸⁾	분신 NO. 117, 1982 ⁹⁾
작품			
사이즈	철, 소재불명	15.5 x 31 x 72 (cm)	17 x 34 x 67 (cm)




위 [표-3] 오종욱의 작품 <원자시대 사람들>을 살펴보면 제목에서부터 원자력, 즉 대량살상 무기를 상징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고철들을 용접하여 기괴하고 양상한 구조 조형이다. 상반부는 모래바람에 휘날리는 난파선이 연상되며, 하반부는 뜨거운 태양과 초승달이 서로 대비를 이루며 바라보고 있다. 이원론적인 상징으로 음과 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구성은 현대문명의 기계화와 폭력성이 만들어낸 황폐해진 현실과 서늘함을 자아내어 현대문명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제2의 미망인, 1968>은 오종욱의 전 미망인 시리즈 작품들과 달리 몸체가 사라지고 양손과 양발만이 남아 있고 양쪽 발가락을 하나씩 떼어 양손에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2개의 손가락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 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하늘에 책임을 묻고 있는 듯한 절규가 느껴진다. 오종욱이 작품에 표현하는 비극적인 인간상의 표현이 절정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작품들은 앙상하고 뼈대만 남아 있는 형태와는 달리 작품 <분신 NO. 117, 1982>는 시각적으로 양피감과 매끄러운 표면이 파악되며 조형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다소곳한 수녀의 이미지와 중앙에 처진 부드러운 젓가슴은 마치 모성애를 상징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전의 작품들은 주로 고통과 경고를 보여주었다면, 이 작품은 내면의 치유와 평화를 염원하거나 그동안

작가의 심리에 짓눌렸던 전쟁의 상처가 치유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참혹한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치유의 순간을 갈구하고 있는 작가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표-4] 박종배 작품

주제	역사의 원, 1965 ¹⁰⁾	도전, 2009 ¹¹⁾	인고, 2012 ¹²⁾
작품			
사이즈	철, 115 x 134 x 88 (cm), 마산, 경남대학교	400 x 500 x 400 (cm)	브론즈, 50 x 12 x 51 (cm)

위 [표-4] 박종배의 작품 <역사의 원, 1965>은 거친 칼바람이 헤집고 지나간 듯 불안정하고 파괴적으로 보인다. 작품의 곳곳에 보이는 크기가 다른 구멍들과 날카로운 무엇인가에 의해 후벼 파내어 앙상한 뼈마디 느낌의 형태로 보인다. 마치 죽음을 암시하는 서늘한 이미지가 연상되며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힘과 잔인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해설된다.

작품 <도전, 2009>은 <역사의 원>과는 내용과 형태 차원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보인다. 작가 노트에 의하면 ‘버려진 땅이 완전히 복구되어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마치 어두운 과거의 난관을 뚫고 나와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위한 마음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모티브는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이 설치될 난지도(蘭芝島)에 노을공원은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다. 그러나 박종배는 현대인들에게 일상으로부터의 휴식과 신선한 생태공원인 노을 조각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재탄생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인고, 2012>는 입체적인 사각형은 일반적으로 문이나 액자를 연상한다. 초현실주의 마법사로 알려진

르네마그리트의 작품 <대조(La Grande Marée, 1951)>와 <심금(la corde sensible), 2002> 작품은 액자 속의 또 다른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작품 <인고>는 관람자의 관점과 선험적 경험에 따라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내부 공간의 홀을 기준으로 앞면은 현실을 홀을 통해 보이는 상상의 세계로 인식할 수 있다. 더불어 홀은 전시환경이나 조명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

작품 <인고>, <도전>과 같은 작품들은 간결한 원과 구부러진 사각기둥이 결합한 구성을 볼 수 있다. 문신미술관은 “작품 외적 형상은 점점 단순하나 내부에는 이 단순화된 형상을 팽팽하게 지탱하는 질서의 리듬이 생긴다. 한 마디로 ‘상이한 것의 균형과 시적 표현’의 응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표-5] 박석원 작품

주제	초토, 1968 ¹³⁾	비우, 1969 ¹⁴⁾	핸들-적8576, 1970 ¹⁵⁾
작품			
사이즈	철, 133 x 112 x 30 (cm),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알루미늄	브론즈, 150 x 150 x 50 (cm)

위 [표-5] 박석원의 작품 <초토, 1968>는 미지의 행성에 인간의 정착으로 인한 디지털 솔루션 시티가 연상된다. 인간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상반된 이미지를 부드러운 부분과 뜯겨 나간 부분으로 해석된다. 부드러운 부분에는 초호화 디지털 시티의 도시가 뻣뻣하게 들어서 있다면 대조적으로 뜯겨 나간 부분에는 인류의 발전으로 인해 생긴 공학 쓰레기들이 즐비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연상된다.

김이순(2004)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 작품은 불규칙적 형상과 철의 거친 재질을 강조하여 폐허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자신이 “전쟁에서 얻어진 처절함과 비참한 것이 지나간 뒤의 허무감을 느끼는 인간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젊은이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고 회고하며 그 당시 한국의 전후 심정이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하였다.¹¹⁾

작품 <비우, 1969>는 한국전쟁과 그 후의 빠른 산업화로 인해 황폐해진 바다와 대륙의 모습 혹은 빅뱅 후에 발생하는 블랙홀이 연상된다. 이 작품은 <초토>와 비슷한 표현방식이나 재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전쟁 후에 상흔을 입고 덩그러니 남겨진 문명의 허무를 이야기하는 듯 보인다. 작품 <핸들 - 적8576, 1970>은 <비우>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바람에 뜬겨나간 것 같은 재질감을 보여준 전(前) 작품과는 달리 <핸들 - 적8576> 작품은 속을 파헤친 것 같은 흔적으로 보인다. 박석원의 작품은 점진적으로 외형이 매끈하고 균형 잡힌 원으로 변형되었으며 중심점을 명확하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김이순(2006). op.cit., p.82

소결

지금까지 국내 작가 김정숙, 송영수, 오종욱, 박종배, 박석원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표-6] 국내작가 비교

작가	용접조각 기법	내용
김정숙	브레이징 기법	점·선·면을 이용한 구성
송영수	단조 기법	금속의 거친 재질을 이용한 표현
오종욱	오브제, 앓상블라주	기성공업 제품들을 재조합
박종배	열변형 방식, 그로테스크 기법	열을 지속적으로 주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철의 재질감을 표현함
박석원	열변형 방식, 그로테스크 기법	부분적으로 그로테스크 재질감을 입히고 나머지 부분은 대조적으로 남겨둠

김정숙의 작품 표현방식은 주로 용접기법 중 납땜(brazing)하여 집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브레이징 기법을 이용하여 모재는 용융하지 않고 점, 선, 면을 이용하여 작품을 추상적으로 구성하였다.

송영수는 단조 기법을 이용하여 면을 팽창시키거나 볼륨을 형성하는 방식의 작품을 표현했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질감은 주로 선의 중간중간에 두드러진 자국으로 인해 크고 작은 양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조 기법의 효과를 살려 날카롭고 강렬한 느낌의 선은 작가가 작품에 담긴 메시지의 상징과 작가만의 이상을 표현하기 적합한 표현방식인 것 같다.

오종욱은 앓상블라주 방식으로 그 당시 구하기 쉬운 고철과 폐철 조각과 같은 기성공업 제품들로 입체 구성하여 표현했다. 이러한 전쟁의 상처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경고의 이야기를 전쟁의 잔해물로 기괴하고 앙상한 조형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했다.

박종배는 열변형 기법과 그로테스크 기법을 병행하여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이며 흉측스러운 재질감을 표현했다. 특히 작품에서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는 즉흥적이며 추상적인 조형 표현은 철과 용접이라는 도구 표현 수단이 가져온 결과물로 인식된다.

박석원은 그로테스크 기법으로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상흔을 추상적 표현을 하였다. 작품의 면 처리는 매끄러운 면이 거칠고 기괴한 면과 대조 또는 대비시킴으로써 작가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위와 같이 작가들과 작품들에서 파악되는 것은 먼저 시대적인 배경이 기본으로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작품을 시도하여 제작한 점이다. 셋째는 그 당시 작품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파격적이고 추상 조각을 선보인 점이라 할 수 있다.

국의 용접조각 작가로는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훌리오 곤잘레스(Julio Gonzalez, 1876~1942), 프랑스의 세자르(Cesar Baldacchini, 1921~1998), 미국의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1906~1965), 안토니 카로(Anthony Caro, 1924~)의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초의 용접조각은 피카소의 작품에서 시작되었다. 피카소는 1928년 곤잘레스(Julio Gonzalez, 1876~1942)와 함께 <인물>이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처음에는 선으로 된 드로잉이었으나 피카소는 조각으로 제작하기를 원하였고 철사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철사로 ‘공간 속에 드로잉’을 하듯 형상이 표현되어 있다. <인물>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조각은 하나의 덩어리로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이 허물어졌고, 구조나 공간이 현대조각에서 중요한 조형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30년 피카소는 <정원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기존의 주조 기법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형태를 금속 오브제를 용접하여 제작하였으며 용접조각의 표현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진다.¹²⁾

12) 김이순(2006). op.cit., p.69

[표-7] 피카소 작품

주제	She-Goat, 1950 ¹⁶⁾	무제, 1967 ¹⁷⁾	정원의 여인, 1930 ¹⁸⁾
작품			
사이즈	117.7 x 143.1 x 71.4 (cm)	15.2m(높이), 160t	철사·철판, 210 x 117 x 82 (cm), 미국, 개인소장

위 [표 - 7] 작품 <She-Goat, 1950>는 오랜 시간 굶어서 살가죽이 뼈에 붙어있는 앙상한 염소가 연상되었다. 그리고 염소의 배는 뼈에 가죽만 남은 부분들과는 대조적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습과 염소의 젖이 부풀려져 있는 점이 임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작품을 통해 피카소는 대외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심리적 상황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염소가 서양에서 악마의 상징이나 음란한 것으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당시 피카소의 여인이었던 프랑스와즈와 결별이 작품 제작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무정부주의자였던 피카소는 한국전쟁을 통해 인류의 비극에 대한 관심에서 확장하여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작품 <무제, 1967>는 피카소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자클린 로크의 자화상으로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친 여인에 대한 애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보인다. 평면 작품에서 보이는 다(多)시점을 입체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즉, 피카소의 큐비즘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작품으로 간주된다.

작품 <정원의 여인>은 비쩍 마른 로시난테에 탄 낡은 갑옷을 입은 돈키호테의 우스꽝스러운 형상 같다가도 정원에 있는 여인과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들을 구성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홀리오 곤잘레스(Julio Gonzalez, 1876~1942)는 1910년경부터 조각을 시작하였다. 현대조각의 발달에 있어서 재료, 형태, 공간, 주제, 의미, 기술 등으로 꾸준히 영향을 미친 철 조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곤잘레스는 재료적인 면에서 철이라는 소재는 그 당시 공업용으로만 취급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작품 현대의 물질문명에 새로운 공간 세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곤잘레스의 기법 중 단조 기법이나 ‘Repouse’기법¹³⁾은 그의 마지막 작품까지 드러나고 있다. 그는 철의 순수성을 중요시하여 직접 소재를 절단함으로써 철에 생동감을 넣어 표현하였다.

1932년대 곤잘레스의 작품에는 입체주의의 영향이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곤잘레스가 피카소와 절친한 교우 관계의 영향을 받았고 피카소의 초기 조각에 대한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후에 그들의 공동작업도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곤잘레스의 작품 <발레리나, 1952>, <선인장 인간(Monsieur Cactus), 1939> 등은 공간성의 표현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¹⁴⁾

[표-8] 훌리오 곤잘레스 작품

주제	두상(head), 1935 ¹⁹⁾	발레리나, 1952 ²⁰⁾	선인장 인간(Monsieur Cactus), 1939 ²¹⁾
작품			
사이즈	45.1 x 38.7 (cm)	163 x 41 x 35 (cm)	64.3 x 25 x 17 (cm)

위 [표 - 8]의 곤잘레스의 작품을 살펴보면 <두상(head), 1935>은 세 작품 중 재료의 특성을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보이며 단조하거나 표면에 유연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두들기고 돌출시켜 표면에 자국을 내서 양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기법으로 브론즈와 관련된 풍부한 밀도를 철제에 부여하였다. 기하학적인 형태를 사용하여




13) 금속판의 안쪽을 쳐서 겉으로 무늬를 도드라지게 하는 기법

14) 홍우영. “철조 기법 연구 : 훌리오 곤잘레스, 데이비드 스미스, 안소니 카로, 에두아르도 칠리다를 중심으로”, 2007,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묘한 변형이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구상적인 바탕에서 극단적인 상징으로 바뀌었다고 보인다.¹⁵⁾ 작품 <발레리나>에서는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1898~1976)의 모빌이 연상된다. 그는 철사와 철판을 이용하여 입체를 구성하여 조형물을 제작하였으나 곤잘레스는 더욱 입체적인 구를 이용하여 공간 위의 드로잉을 조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대표작인 <선인장 인간>에서는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녹슨 철과 거친 재질감을 표현하여 주술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파동곡선, 곡선, 직선의 틀 위에 기반을 둔 선적인 구조형태의 대담성으로 공간성의 표현을 발견시키고 있다.¹⁶⁾

세자르 발다치니는 우리의 현실을 산업적이고 도시적인 형태에 집중하여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정에서 생겨나는 재료들을 그대로 전시하였고 작품 <현실의 직접적인 제시>라는 극적인 방법을 추구하였다. 1950년대에 세자르는 철 조각을 다루면서 시작하여 1954년 뤼시앙 뒤랑(Lucien Durnad)에서의 전시로 용접조각의 대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주조된 입체 조각, 압축 조각, 유기적인 형태의 팽창작업 등 끊임 없이 재료에 대한 탐구와 실험을 하였다.¹⁷⁾

[표-9] 세자르 발다치니 작품

주제	Compression circa, 1980 ²²⁾	Compression Kadett, 1978 ²³⁾	Plaque, 1958
작품			
사이즈	161 x 100 x 70 (cm)	144 x 65 x 65 (cm)	110 x 56 x 24 (cm)

15) 윌리엄 터커 저, 엄태정 역. 『조각의 언어』, 서광사, 1958, p.81

16) 유성웅 저. 『세계조각사』, 한국색채문화사, 1993, p.56

17) 김복주. “세자르 발다치니(C'esar Baldaccini)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2004,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 [표 - 9]의 <Compression circa, 1980>, <Compression Kadett, 1978>는 자동차 본체가 압축되어있는 형태에도 불구하고 장식적인 효과와 구성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폐품 조각가 존 챔벌린(John Chamberlain, 1927-2011)의 작품 <호두까기(Nut cracker), 1958>의 추상표현주의가 연상되었다. 차체나 산업용 기계와 같은 오브제를 크레인에 의해 압축되어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와 압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구성의 신선함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¹⁸⁾이 연상되었다. 세자르는 1960년대의 산업폐기물들을 새로운 구성으로 제작하여(업사이클링) 새로운 창작의 예술이 되었고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브랜드 프라이탁은 처음에는 상업적 용도로 만들지 않았으나 패션업계에서 업사이클링 분야로 정착하게 되었다. 가방의 소재는 타폴린이라는 방수천, 자동차의 안전벨트, 폐자전거의 고무 튜브 등 재활용 소재에서 얻었다. 산업 쓰레기를 구성하여 재창조와 재결합을 통해 도시의 현대적 자연의 재발견과 그에 대한 새로운 감각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를 표방하는 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Plaque, 1959>는 커다란 금속판의 표면에 철의 재질감을 입혀 표현하였고 리드미컬한 음율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함무라비법전¹⁹⁾으로 보이는 듯한 철판과 그 위에 조각된 설형문자와 같은 표현방식은 세자르가 말하고자 하는 작가가 자신만의 언어를 작품에 승화시켜 보여주는 듯하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1906~1965)는 미국 미술사에서 조각을 개척하였으며 최초의 철 조각가로 다양한 시도와 독특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한 작업으로 현대미술사에 중요한 조각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미스의 작품은 기하학적이며 형태학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철의 부식, 채색, 마광²⁰⁾ 과 같은 마감처리 기법과 오브제를 이용한 용접기법은 오늘날까지 철 조각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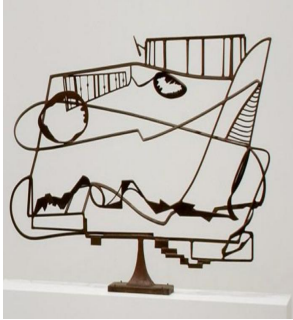


18) 위키백과, 프라이탁 형제가 1993년 설립한 가방 제조 회사

<https://namu.wiki/w/%ED%94%84%EB%9D%BC%EC%9D%B4%ED%83%81>(2021.12.29 검색)

19) 위키백과, <https://namu.wiki/w/%ED%95%A8%EB%AC%B4%EB%9D%BC%EB%B9%84%20%EB%B2%95%EC%A0%84>(2021.12.29 검색)

20) 옥이나 돌, 쇠붙이를 갈아서 빛이 나게 함

[표-10] 데이비드 스미스 작품

주제	허드스강의 풍경, 1951 ²⁴⁾	Royal Bird, 1948 ²⁵⁾	큐비 28, 1965 ²⁶⁾
작품			
사이즈	123.8 x 183.2 x 44 (cm)	20.3 x 25.4 (cm)	274.3 x 279.4 x 114.3 (cm)




데이비드 스미스의 작품 <공중구성(Aerial Construction), 1936>은 1936년 피카소와 곤잘레스의 영향을 받아 시작한 용접담게 피카소의 철 조각의 초기 작품인 <Construction in Wire, 1930>이 연상되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스미스가 입체파와 구성주의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 시점부터 스미스는 회화와 건축물을 융합시키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Royal Bird, 1948>는 작품의 명제의 뜻인 ‘봉황’을 연상시키는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새의 앙상한 뼈만 남은 모습이며 스미스의 작품 <슈라기 새, 1945>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뼈대만 남아 있는 형상은 전쟁에 대한 공포의 이미지를 표현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제가 ‘봉황’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의 제국주의에 대한 파괴력을 의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작품 <큐비 28, 1965>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포로 윤기를 내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여 제작함으로써 광택이 환경에 의한 빛을 반영토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표면이 환경에 의해서 빛을 계속하여 반사하기 때문에 철의 무게감을 감소시켜 경쾌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적인 면으로써는 자칫하면 위태로워 보일 수 있는 구성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안토니 카로(Anthony Caro, 1924~)는 공간, 형태, 재료에 대한 탐험을 계속하는 현대조각 위인 중 한 명이다. 1950년대 헨리 무어의 조수로 일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금속으로 된 추상 조각들을 주로 제작하였다. 카로의 작품은 순수한 건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며 현실 공간에 그림을 그려 넣은 추상적 조각이라는 평이 있으며 재료의 무게, 질감, 양감 등을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추상적 표현을 하였다.

[표-11] 안토니 카로 작품

주제	24시간(Twenty Four Hours), 1960 ²⁷⁾	Red Splash, 1966 ²⁸⁾	Child's Tower Room, 1983 ²⁹⁾
작품			
사이즈	138.5 x 223.5 x 89 (cm), Tate Gallery, London	45 1/2 x 69 x 41 in (115.5 x 175.5 x 104 (cm))	274.5 x 381 x 274.5 (cm)

[표 - 11] 카로의 작품 <24시간(Twenty Four Hours), 1960>은 세 개의 금속판이 연결되어 하나의 조각을 형성하고 있으며 좌대 없이 바닥에 닿아 자리를 잡고 있다. 처음에는 멀리 보이는 산과 하늘의 태양을 연상하는 작품이었으나 카로의 작품은 무언가를 상징하거나 재현하지 않음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카로의 이후의 작품들도 받침대나 지지대 없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카로의 건축의 기능적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그의 표현방식은 건축과 같은 수직성에 대한 반감과 작품의 기념비적인 성격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 <Red Splash, 1966>는 4개의 기둥이 보이며 기둥들을 연결해주는 격자망이 보인다. 처음에는 무게중심이 맞지 않고 형태가 엉성해 보이지만 맞춰지는 균형감을 구성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품 사진의 여러 방향을 살펴보니 실제로 이 기둥들은 크기가 각기 다르며 제일 큰 것은 4피트이고 다른 기둥과의 사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로는 기둥들을 시각적으로 배열하고 다른 기둥들과의 실제크기의 모호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깊이로 인해 왜곡된 감각이 발생하여 착시효과를 주며 회화의 원근법을 도입한 작품으로 리얼리티와 일루전을 다룬 작품으로 보인다.

작품 <Child's Tower Room, 1983>는 명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노는 놀이 타워가 연상된다. 중심의 원기둥을 중심으로 휘감아 올라가는 계단을 볼 수 있으며 정상 쪽은 감싸져 있고 밖을 볼 수 있는 구멍들이 보이며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을 실제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형태 또는 관람자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카로는 ‘스컬피텍처(Sculpitecture)’라고 명명하였다. 1980년대 카로는 건축적 개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조각과 건축이 결합 된 고전 미술의 양식을 현대적인 표현 언어로 제작하였고 관객 참여형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다음 [표-12]는 국외 작가들의 조각 기법과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12] 국외작가 비교

작가	융접조각 기법	내용
피카소	오브제, 앓상블라주	얇은 철판과 금속선재들을 통해 자유로운 형태 구성
홀리오 곤잘레스	단조 기법, Repouse기법	단조와 Repouse기법을 이용해 재질감을 강조
세자르 발다치니	압축, 팽창	압축과 팽창을 이용한 재질감 강조와 새로운 작품으로서의 탄생
데이비드 스미스	오브제 접합, 앓상블라주	거대한 오브제를 접합하여 재구성
안토니 카로	오브제 접합	철재를 구성하고 표면을 채색 primary structure의 시발점이 됨

피카소는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앳상블라주 기법으로 작품 표현을 하였다. 피카소가 철조에 매료된 이유는 얇은 철판과 금속들을 이용해 자유로운 형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료의 혼용을 통한 아방가르드 정신을 파악할 수 있었다.

홀리오 곤잘레스는 당시 주조(casting)에만 의존해오던 기법의 틀을 깨고 산소 아세틸렌 용접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였다. 용접을 통한 접합과 단조, Repouse 기법으로 재질감의 강조를 표현하는 점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초석이 되어 철조는 거의 산소아세틸렌 용접이나 피복아크 용접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세자르 발다치니는 기성공업제품들을 기존의 용접을 통한 재구성이 아닌 있는 그대로 전시를 하거나 압축과 팽창을 통해 새로운 구성을 하였다. 세자르의 작품 세계관은 기존의 팽배한 개념을 넘어서 혁신적이고 모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표현 방법은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작가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될 것 같다.

데이비드 스미스는 오브제를 활용한 작품이 주류다. 오브제는 거대한 토탑과도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해 작품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오브제는 건축적 구성과 각각 작품의 상징성을 드러내어 표현했다. 표면 질감은 회화의 액션페인팅과도 같은 그라인더 자국을 남겨 재질감을 강조하였다.

안토니 카로는 오브제 철재의 표면을 원색으로 채색하였다. 단순하면서 추상적 형태의 모양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 영국의 Primary Structure 경향의 작품들의 시발점이 되었다.

제3장 용접조각 표현기법

제1절 오브제

오브제는 학술용어로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사물, 물체, 객체 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오브제는 어떤 물체가 예술과 무관해 보이지만 우연적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심리적인 이유로 임의적인 조합을 하여 본래의 기능이나 용도의 의미를 잃고 작품이 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나 연상작용으로 기묘한 현상을 얻을 수도 있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은 즉흥적이고 무의식적인 합성, 조합에 의한 새로운 시각적 언어의 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다.²¹⁾

본 연구에서는 오브제에 대한 입체파에서 팝아트까지의 작품을 탐색한 후 현대 용접작가의 오브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브제의 태동은 20세기 초 큐비즘(Cubism)²²⁾의 중심에 있었던 피카소와 브라크의 실험적인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회화의 평면성을 탈피하고자 신문지나 벽지, 천, 모래, 톱밥 등과 같은 재료를 도입하여 회화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공간 재현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의도하는 해석의 상태로 작품 제작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점부터 오브제를 이용하여 콜라주, 앳상블라주, 파피에콜레 등 작품 제작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는²³⁾ 것을 [표 - 13]에서 파악할 수 있다.

21)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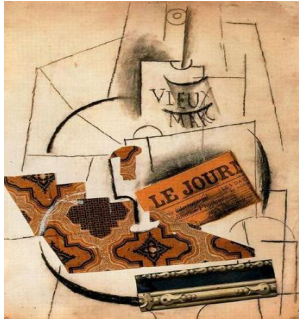

<https://monthlyart.com/encyclopedia/%EC%98%A4%EB%B8%8C%EC%A0%9C/>(2021.12.30 검색)

22)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2007, 국립국어원

20세기 초 회화를 비롯해 건축, 조각, 공예 등 국제적으로 퍼져 전파된 미술 운동. 인상파에서 시작되어 야수파 운동과 전후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세잔(Paul Cezanne)의 3차원적 시각을 통해 표면에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종래 원근 법칙의 기본 원리는 포기하면서 동일한 사물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1909년 피카소(Picasso)와 브라크(Braque)에 의해 주도되었다.

23) 정진아. “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오브제의 물질성에서 비물질성으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 사운드 아트에서 드러나는 비물질적 오브제를 중심으로”, 2016, 한국영상학회

[표-13] 피카소 콜라주 작품

주제	바이올린, 1913 ³⁰⁾	비으마르크, 1912 ³¹⁾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1912 ³²⁾
작품			
사이즈	81 x 75 (cm)	63 x 49 (cm)	26.7 x 34.9 (cm)

위와 같이 작품 <바이올린, 1913>을 살펴보면 종이의 종류가 다양하며 기성 제품인 인쇄물을 오브제 재료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비으마르크, 1912>는 ‘VIEUX MARC’라는 문자가 병의 목에 쓰인 것으로 술병의 라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술병은 평면으로 구성된 면과 선으로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오브제를 이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오브제는 신문지와 액자프레임 이미지를 혼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피카소의 이러한 즉물적(卽物的)²⁴⁾인 작업방식은 화면구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지닌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품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1912>는 캔버스에 유채화를 그린 후에 테두리에 오브제인 밧줄을 감아 제작하였다. 그리고 등나무 의자를 유포(油布, oilcloth)에 프린트한 후에 그 이미지를 오브제로 표현하였다. 서양화 전통인 ‘캔버스 위에 오일(캔버스 위에 유화물감, oil on canvas)’의 틀을 깨고 등나무 의자를 복사하여 캔버스에 부착했다는 것은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피카소의 작품에서 쓰인 오브제는 특정한 상징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화의 재현적 표현을 오브제로 대체하여 작품 내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적용되고

24) 다음 어학사전. 즉물적(卽物的):<https://dic.daum.net/search.do?q=%EC%A6%89%EB%AC%BC%EC%A0%81> (2022.03.03 검색)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오브제를 이용한 작품 제작은 이후 미래주의, 구성주의, 다다 등에 영향을 주었다.²⁵⁾

다다이즘²⁶⁾은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후유증 그리고 사회, 정치, 문화 등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예술 문화 속에서도 절망과 허무, 사회에 대한 부정과 저항의 경향을 보인다. 다다이즘의 중심에는 뒤샹의 ‘발견된 오브제’를 살펴볼 수 있다. 뒤샹의 오브제는 입체파의 오브제와 달리 이미 완성된 기성 제품인 ‘레디 메이드(ready made)’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하였다.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을 본래의 환경에서 분리하여 미술관에 배치함으로써 작품이 되는 기성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반기와 저항으로 반예술성을 나타낸다.

뒤샹은 초기부터 전통 회화에 대한 과격적인 면을 보였으며 이러한 오브제 사용은 근대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표-14] 마르셀 뒤샹 작품

주제	샘, 1917 ³³⁾	자전거 바퀴, 1913 ³⁴⁾	병걸이, 1914 ³⁵⁾
작품			
사이즈	61 x 36 x 48 (cm)	126.5 x 31.5 x 63.5 (cm)	64 x 24 (cm)

25) 박효빈. “회화에서 일상적 오브제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2012,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다음 어학사전. 다다이즘 <https://dic.daum.net/search.do?q=%EB%8B%A4%EB%8B%A4%EC%9D%B4%EC%A6%98> (2022.03.03 검색)

위 [표-14]의 작품 <샘, 1917>은 뒤상의 레디메이드 중 대표적인 작품이다. 뒤상은 작품 제작에 얽매이지 않고 기성 제품을 선택하여 오브제로 차용하였다. 기성 제품 중 일반인이 선호하지 않는 사물을 이용하여 기존의 예술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깨트리는 충격을 주었다. 작품 <자전거 바퀴, 1913>는 오브제로 기성제품인 자전거 바퀴와 의자를 사용하였다. 뒤상은 작품으로 만들거나 전시할 의도가 없었고 자전거 바퀴는 그저 즐거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뒤상은 어떠한 물체이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선택의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뒤상의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이용한 작품 제작방식은 전통적인 예술사상과 충돌하였다. 뒤상은 작품 <병걸이, 1914>가 제작된 1914년도부터 레디메이드 오브제 작품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병을 건조하는 본래의 용도에는 관심이 없었고 대량생산하는 공업제품이기 때문에 작품의 재료로 쓰였을 것이다. 즉 실용성은 소멸되고 외관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조각적인 조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 재료로 선택되었다는 추정도 할 수 있다.²⁷⁾

이후 오브제를 이용한 작품 제작은 팝아트로 이어졌다. 팝아트는 물질적 풍요 속에 미국의 독자적인 소비문화와 예술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팝아트는 특정 소유물이 아닌 누구나 제작할 수 있고 어떠한 물체를 표현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주로 대중들과 접근성이 가깝고 진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과거의 회화 그림 소재에 있어서 개성이라는 개념은 사라져버렸다. 오브제는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존재하는 그 자체로 사용하였다.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앤디 워홀(1928~1987), 클레스 올덴버그(1929~2022), 로이 리히텐슈타인(1923~1997), 로버트 라우젠버그(1925~2008) 등이 있다.

그 중 본 연구자의 오브제를 이용한 작품 제작 기법과 근접한 작가로 클레스 올덴버그를 살펴보고 팝아트의 오브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27) 정효미. “마르셀 뒤상의 예술세계 연구”, 2012,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15] 클레스 올덴버그 작품

명제	clothespin(클립), 1976 ³⁶⁾	스푼 다리와 체리, 1988 ³⁷⁾	spring, 2006 ³⁸⁾
작품			
사이즈	304.8 x 111.7 x 61 (cm)	900 x 1,570 x 400 (cm)	2,000 x 600 (R)

클레스 올덴버그의 [표-15]의 작품 <clothespin(클립), 1976>은 대중들에게 익숙하며 일상생활 물건인 오브제인 빨래집게를 확대 및 거대화시켜 제작하였다. 클레스 올덴버그의 작품인 빨래집게는 좌우 균형이 완벽하게 비례가 맞는 것과 집게의 일상성·기능성으로 예술적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적절하였다.

작품 <스푼 다리와 체리, 1988>은 조각공원의 녹색 배경과 대조적으로 따뜻한 감성이 느껴진다. 오브제인 스푼의 매끈한 면과 화사한 색감은 현대적이며 대중적 시선을 사로잡을만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일상 물음 오브제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현대 미술의 초석이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spring, 2006>은 한국의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되어 있어 더욱 관심이 가는 작품이다. 클레스 올덴버그는 청계천의 생태복원 상징으로 오브제인 다슬기의 형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하단부에 샘을 만들어 청계천의 샘솟는 물을 표현하였고 밤에는 조형물의 원형 입구가 연못에 비쳐 보름달이 뜬 것처럼 표현하였다.

위 작품 <clothespin(클립), 1976>, <스푼 다리와 체리, 1988>, <spring, 2006>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시도는 클레스 올덴버그의 오브제를 이용한 실험적인 작업으로 새로운 시점으로 일상 물음 보고 예술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을 거대화시키는 ‘확대’는 사이즈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대한 탐색과 새로운 시각적 경험이 발상의 전환으로 연계되어 예술과 생활이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간과 예술 사이에 있던 거리를 상쇄하고 예술과 대중의 시각에 새로운 공통적인 언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현대미술의 융접조각에 있어서도 오브제를 통한 작품 제작은 한층 더 자유로워졌다. 그중 정크아트를 통한 오브제의 사용은 본 연구자의 작품 제작 기법과 접근성이 가깝다. 정크아트(Junk art)는 업사이클 아트(upcycle art)로도 지칭하기도 한다. 정크아트는 1950년대 이후 산업폐기물이 대규모로 방출되기 시작하면서 미술 작가들이 작품의 소재로 되었다. 작가 에릭 송(송시규)은 한국의 정크아트 선두 주자이자 메탈 아티스트(metal artist)로 일상생활에서 생긴 폐품이나 고철의 부속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야기에 의한 작품을 제작했다. 이러한 제작방식은 고철의 부속품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표-16] 에릭 송 작품

명제	태권x(a), 2009 ³⁹⁾	옵티머스 프라임 d, 2019 ⁴⁰⁾	액자형 버팔로, 2019 ⁴¹⁾
작품			
사이즈	300 x 200 x 600 (cm)	300 x 200 x 600 (cm)	80 x 60 x 120 (cm)

28) 이홍우, 엄혁용. “현대조각에 나타난 차용과 심미적 표현 연구-클래스올덴버그(Claes Oldenburg)와 전망을 중심으로”, 2021, 한국기초조형학회, Vol.22 No.3

위 [표-16]의 작품 <태권x(a), 2009>는 한국의 최초의 로봇 캐릭터인 태권V를 고철의 부속품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정크 아트로 재탄생시켰다. 고철의 부속품을 이용해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히어로 캐릭터들을 재현하였다. 에릭 송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자원순환의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버려진 자원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작품 <옵티머스 프라임 d, 2019>도 태권 로봇과 같은 미래형 로봇의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로봇은 정형적이면서도 표현의 방법이 구조적이고 재료의 부품 하나하나가 기능적으로 보여져 움직일 것만 같다. 에릭 송은 초기 작업부터 ‘움직임’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두고 작품을 제작하였다. 역동성과 생동감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어 작품의 볼거리 제공과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하였다.

작품 <액자형 버팔로, 2019>는 버팔로의 뿔을 의미하는 특정 기업의 이미지를 상징적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작품을 기업 내 상징 공간에서 전시함으로써 기업 홍보 및 브랜딩을 시도한 실험적인 작품으로 보인다. 또한 고철의 부속품 오브제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앗상블라주

앗상블라주의 사전적인 정의는 집합, 조합에 의해 여러 가지 물체를 평면적인 회화 위에 입체성을 부여하는 기법으로, 기성품이나 특정 사물을 모아서 제작한 작품을 일컬으며, 형태가 구상이나 추상을 불문하고 양식보다는 기법이나 방법론에 의한 명칭을 말한다.

1945년 앗상블라주(asmsemblage)는 여러 물질로 조합하여 제작된 예술작품을 지칭하며 콜라주와 구별하기 위해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가 명명하였다. 또한 오브제를 조합하여 제작한 삼차원의 콜라주나 콜라주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⁹⁾

29) 다음 블로그. 앗상블라주: [https://blog.daum.net/pgh57/4003965\(2022.09.12 검색\)](https://blog.daum.net/pgh57/4003965(2022.09.12 검색))

[표-17] 피카소와 뒤샹의 앗상블라주 작품

명제	기타, 1914 ⁴²⁾	은밀한 소음과 함께, 1916 ⁴³⁾
작품		
사이즈	78 x 35 x 19 (cm)	12.9 x 13 x 11.4 (cm)

앗상블라주의 기원은 [표-17]의 피카소의 작품 <기타, 1914>, 뒤샹의 작품 <은밀한 소음과 함께, 1916>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피카소의 작품 <기타>를 살펴보면 기존의 조각 개념에서 벗어나 얇은 금속판을 조립한 삼차원의 조각으로 미완성 작품의 이미지와 더불어 벽에 걸 수 있는 앗상블라주 조각이다. 뒤샹의 작품 <은밀한 소음과 함께>는 노끈을 감아 만든 구의 형태가 두 장의 동판 사이에 배치된 앗상블라주 조각이다. 동판은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데 나사를 조이면 구체의 안에 있는 물체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있다. 뒤샹은 기법과 가시성만을 중시하는 회화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자기 내면의 스토리나 정서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미술의 영역을 시각적인 측면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로 확장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하였다.

더불어 작품 <은밀한 소음과 함께>는 보이지 않는 청각적인 측면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시도로 볼 수 있다.³⁰⁾

현대에 이르러 앗상블라주 작가 존 체임벌린(John Chamberlain, 1927~2011)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30) 유미숙, “부정(否定)과 실험정신으로 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예술세계”, 2007,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18] 존 체임벌린 작품

명제	와일드루트(wildroot), 1959 ⁴⁴⁾	매니토우(Manitou), 1959 ⁴⁵⁾	호두까기(Nut cracker), 1958 ⁴⁶⁾
작품			
사이즈	175 x 133 x 95 (cm)	33 x 33 x 7.6 (cm)	115.6 x 110.5 x 81.3 (cm)

위 [표-18]의 작품 <와일드루트(wildroot), 1959>는 앗상블라주로 폐자동차의 외관 금속판, 파이프, 구부러진 철 막대들을 조합하였다. 자동차의 금속판은 구부러지고 다른 재료들과 합체되어 작품의 볼륨감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또한 애나멜 빨간색의 현대적인 색채는 작품의 우측에 사용된 녹슨 재료들과 대조되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 <매니토우(Manitou), 1959>는 녹슨 철판들을 조합하고 그 위에 용접한 철판 조각들을 배치하였다. 페인트칠이 오래되어 벗겨지고 있는 것이 보이며 빨간색 철판을 좌측과 상단에 배치하여 앗상블라주 하였다. 이 작품에서 그는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호두까기(Nut cracker), 1958>는 첫 번째 작품과 비교해 볼 때 폐자동차의 부품을 한층 더 구부리고 압축하여 앗상블라주하였다. 이러한 작품 표현방식은 회화에서 거친 붓 터치를 한 것과 같은 재질감이 느껴진다.

위의 세 작품을 살펴볼 때 존 체임벌린은 작품을 파쇄, 압축으로 앗상블라주하여 산업 사회의 이면을 표현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직접적인 재료로 자동차 폐기물을 차용하고 녹슨 부품과 생활의 스크래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현실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³¹⁾

제3절 열변형식 기법

열변형(熱變形)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 온도에서 물체에 일정 열을 가했을 때, 그 형태가 변형되어 일그러지거나 우그러짐이 생기는 현상³²⁾을 말한다. 용접조각에서 열변형식 기법은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추상적으로 전달하는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열변형에 의한 철의 수축과 팽창, 뒤틀림, 우그러짐 등이 즉흥적으로 발생하여 유기적인 조형성이 발현된다. 이와 같은 유기적인 조형성은 같은 패턴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형태로 생명의 운동감을 전달할 수 있다.

앞에서 용접조각의 열변형식 기법을 그 자체로 제작한 박종배, 박석원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21세기 초, 디테일한 열변형식 기법으로 작품 표현을 하는 엄익훈의 작품을 살펴보려고 한다.

[표-19] 엄익훈 작품

명제	무제, 2007 ⁴⁷⁾	무제, 2004 ⁴⁸⁾	무제, 2007 ⁴⁹⁾
작품			
사이즈	철, 40 x 35 x 65 (cm)	동, 오석, 32 x 9 x 60 (cm)	동, 오석, 80 x 20 x 122 (cm)

31) 이승미. “존 챔벌레인(John Chamberlain)의 조각에 나타난 뉴 리얼리스트적 특성 연구”, 201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다음 어학사전. 열변형:<https://dic.daum.net/search.do?q=%EC%97%B4%EB%B3%80%ED%98%95> (2022.10.01 검색)

위 [표-19]의 첫 번째 작품 <무제, 2007>는 철을 열변형 기법을 이용하여 열로 변형을 주고 구부리거나 말아내어 여러 개의 편린(片鱗)³³⁾을 만들고 조합하여 그물과 같은 형태를 제작하였다.³⁴⁾ 즉흥적이며 유기적인 구성은 끊이지 않는 파도, 물의 흐름, 바람의 순환 등과 같은 역동성이 느껴지는 자연물로 보인다.

두 번째 작품 <무제, 2004>는 첫 번째 작품과는 다른 형태의 편린을 열변형 기법으로 제작하여 반복적인 모양이 집적된 구성을 볼 수 있다. 하나의 매스(mass)로 합쳐진 조각들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나 서로 맞닿아 있는 면이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작품의 재질감이 강조되고 있다.

세 번째 작품 <무제, 2007>는 동판에 열을 주어 가열하고 휘어짐 현상과 두드린 흔적이 보인다. 또한 두 번째의 편린들이 증식되어 입체적인 양감이 느껴지며 유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수백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물아치며 토네이도와 같은 조류(潮流)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열변형식 기법을 이용한 작품 제작을 탐색한 결과, 정형화된 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흥성과 유기적 변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구성을 할 수 있다. 또한 철의 재질감을 강조시키는 시각적인 본질뿐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다른 이미지의 상상을 끌어낼 수 있어 용접 조각에서 탁월한 기법으로 사료된다.

제4절 단조 기법

용접 조각에서 단조의 사전적인 의미는 금속을 열에 달군 뒤 두들기거나 가압하여³⁵⁾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단조(鍛造, forging)는 열을 가하고 망치 가공(hammering)하여 표면의 재질감 표현이나 부드러운 곡면을 제작하는 기법을 말한다. 특히 단조를 통한 용접 조각은 열과 망치의 연마를 통해 표면과 곡선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단조 작업방식은 주조하여 주물을 생산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33) 다음 어학사전. 편린(片鱗):<https://dic.daum.net/search.do?q=%ED%8E%B8%EB%A6%B0>(2022.10.01 검색)

34) 엄익훈. “현대조각에 나타난 반복, 집적, 증식의 표현기법 연구 : 연구자 작품 중심으로”, 200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다음 어학사전. 단조:<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309315&supid=kku000074187>(2022.10.01 검색)

재질감 표현을 주로 단조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한 작가로는 앞서 [표-2]의 송영수 작품 <효>, <새>, <핵의 공포>에서 살펴보았다. 더불어 2000년대 작가 최기석을 통해 현대 단조 기법이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표-20] 최기석 작품

명제	Untitled, 2005 ⁵⁰⁾	Untitled, 2010 ⁵¹⁾	Untitled(Column Series), 2012 ⁵²⁾
작품			
사이즈	Iron, Forging+Welding, 180 x 180 (cm)	Iron forging+welding, 50 x 50 x 50 (cm)	Iron, Forging+Welding, 50 x 50 x 320 (cm)

위 [표-20]의 최기석 작품 <Untitled, 2005>는 단조 기법을 이용한 작품이 마치 주조 기법으로 보이는 물질성과 실재성(實在性)이 강조되고 있다. 작품 <Untitled, 2010>은 단조 기법을 통해 철의 곡선과 표면을 매끄럽게 표현하였다. 표면정리에 있어 섬세하고 부드럽게 표현하여 공이 굴러갈 것 같은 자유성이 보인다. 그리고 연마로 인한 각각의 흔적들은 집약되어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작품의 견고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표현하여 철이 가지고 있는 응축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 <Untitled(Column Series), 2012>은 명제에서 언급하는 ‘column’, 즉 기둥이 보인다. 기둥은 수직적 운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원통형의 기둥들은 단조 기법을 통하여 각각 다르게 표현하였다. 수직적인 기둥들은 재료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으로 인해 울창하고 어두운 숲이 연상된다. 이러한 구성과 표현 방식은 자연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송영수의 작품은 주로 선을 이용해 단조 기법을 표현했다면, 최기석 작품은 주로 면을 이용한 단조 기법은 공업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정형적인 질감, 이질감, 몽환적, 운동감 등 현대에 미술과 어울리는 입체 조각작품으로 해석된다.

제5절 그로테스크 기법

그로테스크(Grotesque)의 사전적 의미는 괴상하다, 기괴하다, 기이하다, 흉측하다, 우스꽝스럽다 등을 나타낸다.³⁶⁾ 서양 미술사 사조로서의 그로테스크 의미는 다음과 같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 고대 로마의 유적 그로타(grotta) 동굴이 발견된다. 동굴 안에는 덩굴무늬 벽화와 장식미술품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예술장식품들의 무늬는 인간과 동물, 식물이 연결된 기괴하고 흉측스러운 특징을 보였다. 이때부터 그로테스크는 이질적인 것이 결합한 형태 혹은 이미지라고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보는 이에게 공포·웃음·두려움·혐오감·매력 등의 이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³⁷⁾

본 연구의 그로테스크에 대한 표현기법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접조각에 있어서 그로테스크는 현실과 비현실을 이미지화하여 나타내기에 탁월하다. 둘째, 그로테스크 기법은 두려움과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환상적·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로테스크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한 작가로는 앞서 [표-4]의 박종배 작품 <역사의 원>, [표-5] 박석원 작품 <초토>, <비우>가 있다. 더불어 2000년대 작가 이성구를 통해 현대 그로테스크 기법이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6)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7%B8%EB%A1%9C%ED%85%8C%EC%8A%A4%ED%81%AC> (2022.10.05 검색)

37) 김희주, 강연미. “장신구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 2018, 한국기초조형학회, p.114

[표-21] 이성구 작품

명제	살아지다 사라지다, 2012 ⁵³⁾	살아지다 사라지다, 2012 ⁵⁴⁾	살아지다 사라지다, 2012 ⁵⁵⁾
작품			
사이즈	stainless steel, 57 x 109 x 25 (cm)	stainless steel, 70 x 77 x 17 (cm)	stainless steel, 49 x 73 x 36 (cm)

위 [표-21]의 작가 이성구의 첫 번째 작품 <살아지다 사라지다, 2012>는 인간의 형체와 구상적 형체가 사라지는 순간을 그로테스크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인간의 형체는 이미 얼굴이 사라져버렸음에도 사유하고 있는 듯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작품의 구성은 그로테스크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몰입감, 긴장감, 기이함을 전달하는데 탁월한 것 같다. 두 번째 작품 <살아지다 사라지다, 2012>는 예수가 십자가에 걸린 모습을 오마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가 현대의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현대인이 바라본 예수에 대한 관점인지 물음을 던진다. 표현기법으로는 사람의 신체, 피부의 표현뿐만 아니라 옷의 질감을 그로테스크 기법 표현은 예상 밖의 재질감으로 독특한 이질감을 주고 있다. 세 번째 작품 <살아지다 사라지다, 2012>는 얼굴의 형체와 하체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초연한 자세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표현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초연하며 사유하는 모습의 첫 번째 작품과 맥락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박종배와 박석원은 그로테스크 기법을 하나의 입체 조각 표면 위를 재질감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성구는 작품의 형태를 이루는 각각의 조각에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입혀 소조와도 같이 조각하였다. 입체 조각 자체를 벗어나 작품의 대상에 대한 에너지나 후광 등을 표현하여 생동감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해석된다.

제4장 작품제작 및 해설

제1절 작품계획

최근 현대인은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다는 것을 적실하게 통감하고 있다. OECD 203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수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관리, 오염 및 유해 물질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더욱 야심적인 정책 없이는 환경에 대한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향후 몇십 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 표명했다.³⁸⁾

더불어 넷플렉스 다큐멘터리 <우리의 지구>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유빙의 유실로 삶의 터전을 잃은 바다코끼리들이 벼랑에서 몸을 던지는 내용을 보도했다. 환경오염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린 바다코끼리들은 때로는 무리 밑에 깔려 죽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가파른 절벽 위로 올라가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 푸른 바다가 가까이에 있다고 시각적으로 착각하여 추락하고 만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에 발표된 잠백(Jambeck)의 논문에 의하면 육상에서 관리되지 못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480만 ~1270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공해상에 있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의 총량은 7만 9000톤 정도로 추정되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 있는 쓰레기의 면적은 180만km²로 남한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결과가 나왔다.³⁹⁾

위와 같이 대중매체를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성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셔널지오그래픽 “오늘의 포토”를 보면 면봉을 잡고 이동하고 있는 해마, 플라스틱 뚜껑을 덮고 돌아다니는 소라게, 버려진 낚시 그물에 걸린 거북이, 비닐봉지 안에 갇힌 황새 등은 환경오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보도를 보면서 멸종해 가는 해양생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38) <https://www.oecd.org/env/indicators-modelling-outlooks/40200603.pdf> (2021.11.25. 검색)

3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9273> (2021.11.25. 검색)

세계자연기금(WWF)의 ‘지구생명보고서 2020’에 의하면 자연은 인류에게 지속적인 SOS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의 심각성을 말한다. 홍운희(WWF-Korea, 사무총장)는 현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코로나 19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이상 기후변화로 태풍, 홍수, 가뭄 등은 새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뚜렷한 신호이다.⁴⁰⁾

최근 지구생명지수(LPI, Living planet Index)에 의하면 야생생물의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 크다고 한다. 특히 <지구생명보고서 2020>은 2030년까지의 생물이 멸종하는 추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회복으로의 전환’(Bending the curve)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메랑으로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겪고 있다. 현대인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각성과 결단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형을 다루는 미술작품을 창작할 때 다가가기 쉬운 재료가 합성수지(FRP)이다. 그러나 합성수지는 환경오염에 주범인 플라스틱이며 환경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폐품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폐고철들을 이용하는 용접조각을 시도하게 되었다. 폐고철 용접조각으로 창작된 작품은 버려진 폐고철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새로운 탄생의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에 충분히 매료되었다.

비틀어지고 변형되어 쓸 수 없는 고철과 쓰고 남겨진 철판들을 수집하고 조합하여 소생시켜 그 안에 본인의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버려진 고철들을 구하기 위해 고물상을 드나들었다. 또한 철판을 레이저 커팅하는 업체에 버려진 철판을 구하러 다녔다. 처음에는 철이라는 재료가 견고하고 무거워 운송하기 어렵고 산업재료로 많이 쓰여 재료로 쓰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용접조각은 붙여나가며 만드는 소조와 떼어내면서 작품을 만드는 조각이 가능하였다. 더욱이 철 재료의 물성은 고유의 물질감과 무게감이 있어서 작품의 완성도를 향상하는 도움이 되었다.

작품의 컨셉은 <be born again>이다. 용접조각을 이용하여 버려진 고철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미술작품을 넘어 파괴된 자연이 회귀하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생물, 생태계 또는 그러한 환경을

40) WWFKOREA 지구생명보고서2020.https://www.wwfkorea.or.kr/bbs/board.php?bo_table=earthlings (2022.10.02 검색)

바로 잡길 바라는 현대인의 각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작품은 해마, 상어, 가오리, 바다전갈, 해룡, 고래 등 해양생물들을 창작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생물들의 생태계 환경의 형태를 넘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조형 및 상징성을 담고자 한다. 제작 기법으로는 이론적 고찰에서 탐색한 오브제, 앳상블라주, 열변형식 기법, 단조 기법, 그로테스크 기법 등을 활용한다.

제2절 제작과정

제작과정에서는 작품 대상에 대한 탐구, 작품의 키워드, 주재료, 작품 제작 순서, 표현기법 등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작품 구상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탐색일 것이다. 먼저 작품의 대상인 해양생물들의 생태계와 생식하기 위한 습성 등을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탐색은 주로 넷플릭스, 내셔널 지오그래피, 유튜브를 이용한 생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에서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환경과 관련된 뉴스, 논문, SNS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생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심각한 상태라고 사료된다.

인류가 수호해야 할 지구는 환경이 급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생물들은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생물들의 생명에 대한 신비와 존엄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창작하는데 심신을 전념할 수 있었다.

다음은 작품의 대상이 되는 생물의 선택이다. 선택하는 생물은 멸종위기이며 상징과 환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객체로 결정하였다. 각각의 생물은 신화적 및 상징적인 내용(symbol)이며, 키워드(keyword)는 “환경 수호”이다.







상징적인 내용과 환경 수호의 키워드에 담긴 내용을 풀어내면서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유동적인 유선형과 율동을 이용하여 역동적인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더불어 조형물에 오브제를 이용하여 내재하고 있는 의미와 상징을 담았다. 그리고 용접조각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투박함과 재질감을 이용하여 낡고 황폐된 환경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작품의 주재료는 철(iron)이며 구성적인 면에서 뼈대를 제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뼈대는 반생이를 사용하고 철근을 벤딩(bending)하여 입체적인 매스(mass)를 제작하였

다. 뼈대는 작품 드로잉과 대상의 여러 자세를 보고 상상 속의 비현실적이며 자연스러운 포즈(pose)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뼈대를 제작하면서 몸체의 비율과 비례를 맞추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글라인더나 용접으로 열을 이용해 깎아내거나 접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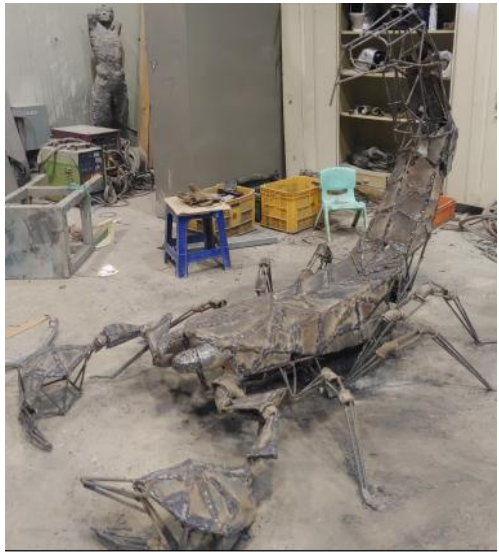


다음 [표-22]는 작품의 뼈대를 제작한 이미지들이다.

[표-22] 뼈대 제작

작품			
	longing for	challenging	green wave
			
	upstream	drifting	resurge

다음 [표-23]은 면 채우기에 대한 제작이다. 용접조각 특유의 물질감을 살리기 위한 용접의 비드를 형성시키거나 철판을 커팅하면서 플라즈마 절단기와 용접봉으로 투박하게 절단하였다. 철판으로 몸체를 구성할 시에는 고의적인 불규칙적 면 채우기를 하여 어설프면서도 비율이 맞게 하여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면을 채우면서 절단된 철판들을 단조 기법을 이용하여 열과 망치로 가공하여 뼈대에 맞는 곡면을 제작하여 접합하였다. 특히 단조 기법은 작품의 울동감과 리듬감을 나타낼 수 있기에 중요한 작업이라고 여긴다.







[표-23] 면 채우기

작품		
	longing for	challenging
		
	upstream	drifting

오브제로 수압계, 스테인리스 파이프와 구(球) 등을 접목하였다. 스테인리스 오브제는 작품 <green wave>와 <dimension gate>에 추가하여 아크용접의 투박함과는 상반되는 깔끔하고 빛에 의해 광채가 나는 구(球)를 배치하여 강조하였다. 작품 <challenging>의 바다전갈의 독침과 이빨은 철 파이프를 이용하여 다른 몸체와 이질감이 느껴지게 제작하였다. 작품 <upstream>의 바닥은 좌대의 역할을 하면서도 앓상블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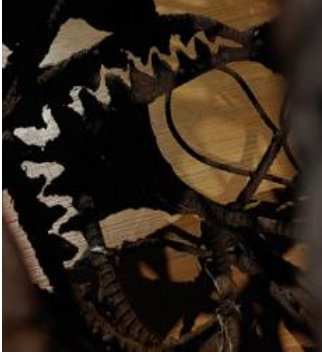




다음 [표-24]는 오브제와 앓상블라주로 표현한 이미지들이다.

[표-24] 오브제와 앓상블라주

작품			
	longing for	green wave	green wave
			
	challenging	dimension gate	upstream

다음 [표-25]는 작품 표현기법에서 열변형식 기법, 그로테스크 기법에 대한 이미지이다.
 열변형식 기법과 그로테스크 기법은 연구자의 황폐되고 오염된 바다에 잠재되어
 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적절하였다. 더불어 두 가지 기법은 열을 점진적으로 가
 해 즉흥성과 의도하지 않은 우연성도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자의
 영혼을 불사르는 노동의 결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표-25] 열변형식 기법과 그로테스크 기법

작 품			
	resurge	drifting	dimension gate
			
	whirlpool	challenging	resurge

제3절 작품해설

[작품 1]

longing for 80 x 80 x 200 (cm) 2019



[표-26] longing for 상세이미지



- Material : 철(iron), 오브제(수압계, 쇠 파이프)
- Process : 오브제, 단조 기법
- Symbol : 수호(守護)

위 [작품 1] <longing for>의 ‘longing for’는 ‘갈망하다, 열망하다’의 뜻을 의미한다. 생태계 파괴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해마는 정면을 응시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갈망하고 있으며 다가올 환경오염의 위협에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몸이 경직되어 긴장하고 있다. 몸체는 갑옷을 입은 수호 기사와 같은 이미지를 구상하였다. 이미 심각해진 환경을 수호하는 해마는 진시황제가 죽은 후에도 무덤을 지키는 토우(土偶)와 같이 황폐해진 바다에서 낡고 부식되면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해마의 눈은 수압계로 표현하였다. 수압계의 눈금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 환경오염을 직접적인 수치로 안일한 인간에 대한 재촉을 의미한다.

국립해양재단의 해양환경 정보포털에 의하면 해마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⁴¹⁾ 연구자는 점차 사라져가는 해양생물인 해마를 환경에 대한 수호의 상징적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수호의 상징으로서 해마를 ‘히포캄푸스’로 그리스어로 ‘말’을 뜻하는 ‘히포(hippo)’와 ‘바다-괴물’이란 뜻의 ‘캄포스(kampos)’가 합쳐진 동물로 볼 수 있다. 히포캄푸스는 로마 문명에서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에서 포세이돈이 해마를 통해 인간을 구원한다는 신앙이 있다. 그리하여 목욕탕 모자이크 장식으로 등장하였다. 로마의 랜드 마크인 트레비 분수⁴²⁾에서는 평화, 신선한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뜻한다. 이러한 신화적인 배경과 멸종위기 생물인 해마를 환경 수호의 상징으로 부각시켰다.

41) <https://www.meis.go.kr/mes/marineLife/protection/species.do> (2022.10.02 검색)

42) 위키백과 <https://namu.wiki/w/%ED%8A%B8%EB%A0%88%EB%B9%84%20%EB%B6%84%EC%88%98> (2022.10.10 검색)

[작품 2]

drifting 180 x 90 x 190 (cm) 2020



[표-27] drifting 상세이미지



- Material : 철(iron), 오브제(수압계, 쇠 파이프)
- Process : 단조, 열변형식, 그로테스크 기법
- Symbol : 구원(救援)

위 [작품 2] <drifting>의 ‘drifting’는 ‘표류하다’의 뜻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환경 파괴와 그에 따른 생태계 불균형으로 인해 자신의 본능을 잊고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몸체는 상어의 사체가 좀비로 변한 것처럼 들성들성하고 황폐된 모습을 표현하였다. 상어를 하단에 배치한 것은 현재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위험한 시기가 왔음에도 변화하는 것이 없는 인류에 대한 무기력하고 맥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어의 왼편에 붙어있는 기둥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있는 인류를 상징하며 그 끝으로 갈수록 첨단(尖端)에 다다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환경은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낚고 깨져버린 기둥에 표현하였다. 그러나 상어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언제든 재기하여 바다를 수호하며 환경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류의 각성으로 환경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자 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하면 상어가 남획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고 발표하였다. 값비싼 상어 지느러미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으로 상어의 대부분 종은 멸종위기 등급으로 위험에 직면한 상태이다.

상어는 오세아니아의 해안이나 바다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전설이나 신화에 등장한다. 그러나 생김새와 달리 신화 속에서는 풍요의 신이나 어부의 수호신으로 불린다. 하와이에서는 상어에 대한 민속 전설이 있다. 카모호알리아이(Kamohoaili)라 불리는 상어의 신은 사람들을 돕고 서민들의 원한을 갚아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부들은 위기에 처하면 배 위에 불을 지펴놓고 아와(kawa)라는 환각성의 식물의 즙을 바다에 쏟고 구원을 기다렸다고 전해진다.⁴³⁾

이러한 신화적 배경과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생물을 인류와 자연의 구원자로서 상징적 조형물로 창작하였다.

43) http://fishillust.com/About_Sharks_9_1 (2022.10.10 검색)

[작품 3]

resurge 50 x 50 x 60 (cm) 2021



[표-28] resurge 상세이미지



- Material : 철(iron)
- Process : 열변형식, 그로테스크 기법
- Symbol : 소생(甦生)

위 [작품 3] <resurge>의 ‘resurge’는 ‘소생(蘇生)’을 의미한다. 소생은 ‘다시 태어나다, 되살리다’를 말한다. 머지않아 미지의 심해에 잠들어 있는 전설적인 생물을 소생시키는 날이 올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자연이 회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생물은 바다를 지키는 수호와 자연을 어지럽히는 인류에 반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상징을 나타낸다.

해마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인 해룡은 바다의 용을 형상화하였다. 예로부터 해룡은 신화나 전설의 생물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해 저편에서 바다를 지키는 괴수로 서술되어 있다. 서양권에서는 시 서펜트(sea serpent), 성서와 페키니아 신화에서는 레비아탄(leviathan), 동양권에서는 이무기 등으로 불린다. 레비아탄은 히브리어로 ‘돌돌 감긴’을 의미하며 예로부터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해룡은 상상 속의 생물이기에 그 모습은 다양하다. 글로 묘사된 현생동물 중에는 악어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북유럽신화에서는 뱀이나 드래곤으로 표현되기도 한다.⁴⁴⁾

연구자는 심해 저편에서 웅크리고 재기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흉측하고 기이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로테스크 기법을 시도했다. 해룡의 상반신은 외골격만을 가지고 있어 내부의 빈공간과 하체의 볼륨감, 양괴감이 상하로 대치되어 상반신은 황폐된 현실을 의미하며 하체는 풍성한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러한 사고체계는 동양사상 음양의 조화라는 질서에서 스며든 것 같다. 또한 용의 비늘의 광채를 구현하기 위해 용접의 부산물들을 연마하였다. 특히, 해룡의 수염은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를 담았다. 그리고 단순히 괴수의 모습을 구현해 인류의 각성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생물의 신비함과 존엄성을 보여주고 현대인의 자각을 촉구하고자 그로테스크 기법과 열변형식 기법을 차용했다.

44) 나무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EB%A0%88%EB%B9%84%EC%95%84%ED%83%84> (2022.10.15 검색)

[작품 4]

upstream 200 x 120 x 170 (cm) 2020



[표-29] upstream 상세이미지



- Material : 철(iron)
- Process : 단조, 오브제, 앳상블라주 기법
- Symbol : 회귀(回歸)

위 [작품 4] <upstream>은 바다에서 활공하고 있는 가오리를 형상화하였다. 광활한 바다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가오리를 보고 있으면 생명의 존엄성과 신비함이 느껴진다. 가오리의 유유자적한 모습들을 탐색해서 작품으로 승화하였다. 명제의 ‘upstream’은 ‘상류로,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의 의미를 말한다. 시간이 갈수록 환경은 급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도하는 가오리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전적인 표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이것은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인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작품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었던 생물의 이름은 만타 레이(manta ray)라는 가오리이다. ‘쥐가오리’ 또는 ‘만타가오리’라고 명명하며 ‘만타’라고도 불린다. 만타라는 뜻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담요, 망토의 뜻을 의미하며 등에 망토를 걸친 모습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현존하는 가오리 개체 중 가장 크며 성체는 코끼리와 사이즈가 맞먹는다. 이 가오리는 온순한 성격과 거대한 덩치 덕분에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관광 명소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20년 전부터 한약 원료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은 멸종위기가 높은 취약종으로 지정하였으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는 2014년 규제 대상 종으로 지정하였다.

신화의 이야기에서는 만타 레이는 “바다 악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독특한 지느러미 모양과 사이즈는 어부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또한 쿠바에서는 만타 레이가 어부의 배를 덮쳐서 물속으로 끌고 간다는 민속 미신이 있다. 열대 바다를 향해하던 유럽인들은 악마 물고기를 화나게 하면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믿었고, 꺼지지 않는 악의와 끈기로 그 배를 쫓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만타 레이는 어부들에게 ‘대자연의 공포’가 되었다.

만타 레이의 고대 신화와 현대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의 회귀에 대한 각성과 희망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표현했다.

[작품 5]

challenging 160 x 150 x 200 (cm) 2021



[표-30] challenging 상세이미지



- Material : 철(iron)
- Process : 단조, 오브제 기법
- Symbol : 부메랑

위 [작품 5] <challenging>의 ‘challenging’은 ‘맞서 싸우다’를 말한다. 인류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자연을 지키는 수호자를 구상하였다. 구체적인 바다전갈의 학명은 고생대에 실존하였으며 ‘브론토스코르피오 안글리쿠스’로 불린다. 일명 ‘천둥 전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몸집이 1미터 정도 되는 크기로 주로 바다에 서식하였다. 이러한 브론토스코르피오 화석은 1972년 영국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BBC 다큐멘터리 ‘Walking with Monsters’에 등장하여 실존하였을 때의 생김새와 포식자로서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발전의 피해자인 전갈은 모든 생물, 자연을 의미한다.

인류의 발전으로 인해 던진 돌은 자연을 향하였으며 그 돌은 부메랑으로 다시금 인류에게 던져졌다. 자연으로부터 돌아온 돌은 전무후무한 전염병과 이례적인 기후 변화를 낳았다. 이러한 돌은 바다전갈에 비유하여 경계 태세를 바짝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앞니를 세우고 앞발을 들고 있는 역동적인 포즈(pose)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최근 이례적인 전염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질환(COVID-19)은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코로나와 관련된 칼럼에서 공우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질학적으로 1950년은 인류세(Anthropocene)⁴⁵⁾의 기준시점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지목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일으킨 상황이라고 표명하였다.⁴⁶⁾ 이러한 질병은 인류가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먹이사슬 체계가 교란되면서 바이러스가 새로운 질병으로 변이된 것이다.

위와 같이 대자연의 수호자 바다전갈이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45)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 본래 지질시대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1980년대 미국의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와 네덜란드의 화학자 파울 크뤼천은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지질시대에 포함시키고자 인류세를 창시했다. ...중략... 사회적으로도 현 시대의 환경 문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22.10.03 검색)

46)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칼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다음에는 어떤 위기?>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 (2022.10.11 검색)

[작품 6]

green wave 24 x 24 x 70 (cm) 2022



[표-31] green wave 상세이미지



- Material : 철(iron)
- Process : 단조, 그로테스크 기법, 열변형식 기법, 오브제 기법
- Symbol : 순환

위 [작품 6] <green wave>의 ‘green wave’의 의미는 ‘끊임없는 파도’이다. 끊임 없이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은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하여 자연을 순환시킨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연의 순환은 피비우스의 띠와 같은 ‘무한’ 반복을 생성한다. 자연의 무한적인 순환을 고래의 유선형으로 구현하였다. 유선형은 물이나 공기의 저항이 적어서 속력을 높일 수 있다. 고래는 자연 순환의 상징으로서 미래로 치달고 나아가는 도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는 무한의 띠인 ‘자연의 순환과 공존’하여 찬란한 미래로 약진해야 할 것이다. 고래의 배와 꼬리에 있는 스테인리스 오브제인 구체는 자연을 순환시키는 고래와 함께하는 무수한 물방울들을 표현한 것이며 그 방울들은 인류를 상징한다. 인간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지 않고 공존하여 함께 이루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고래는 살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몸속 지방과 단백질 사이에 흡수하여 나무의 수천 그루에 달하는 공기 청정 역할을 하고 있다. 수명이 다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때 몸에 저장한 탄소와 함께 가라앉아 수백 년 이상 바다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는다.

고래는 포경선(a whale ship)의 등장으로 20세기에 기계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멸종위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 동해는 한때 고래의 수가 많았으나 주변국들의 남획으로 인해 절멸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 근래에는 각종 동물단체의 주장과 여러 국가가 고래에 대한 보호에 나서며 그 수가 회복 중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래를 신격화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래류를 죽일 시에는 살인죄와 동급으로 사형을 당할 정도였다. 고래는 신들의 메신저이며 행운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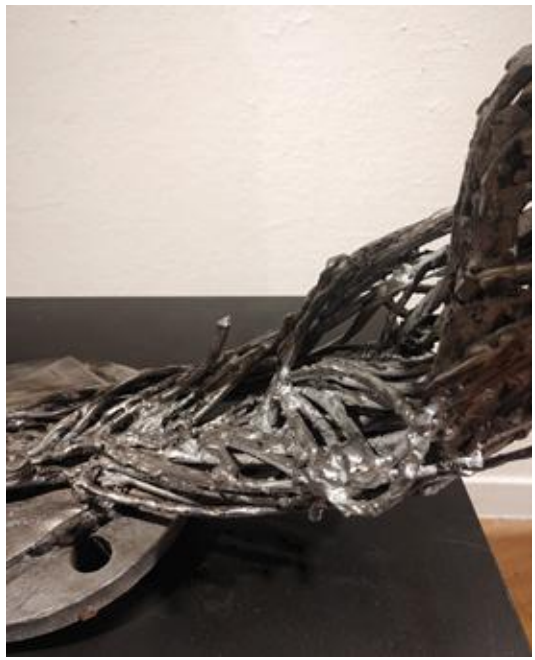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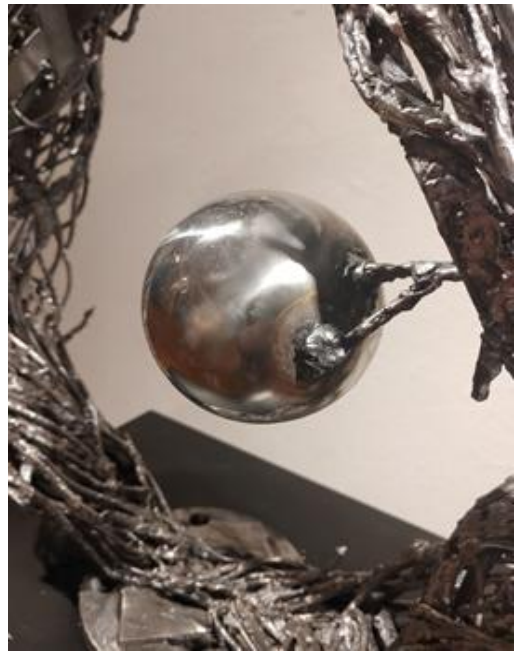
위와 같은 탐구로 연구자는 고래의 신비한 능력과 신화적인 이야기를 자연의 순환을 표현한 상징적 생물로 구현하였다.

[작품 7]

dimension gate 60 x 20 x 58 (cm) 2022



[표-32] dimension gate 상세이미지



- Material : 철(iron)
- Process : 그로테스크 기법, 오브제 기법
- Symbol : 근원

위 [작품 7] <dimension gate>의 ‘dimension gate’는 ‘차원의 문’을 말한다. 차원의 문은 새의 둥지로 구현하였다. 둥지는 자연의 신비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로테스크 기법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철의 그로테스크함과 스테인리스의 이질감을 강조하였다.

둥지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나뭇가지는 자연의 모든 만물을 상징한다. 모든 생물이 모여 시·공간의 다리를 형성한다. 둥지는 새를 서식시킬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하며 인간이 침범하지 않는 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상징적인 근원의 매개체이다. 인간이 밝히지 못한 자연의 섭리와 진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규명되고 있다. 인류는 이러한 발전에 발맞춰 처신해야 할 것이다. 작품의 상단의 스테인리스 구는 인류를 의미한다. 우리는 워홀 사이에 걸쳐져 있는 상태이며 이 시공간을 이어주는 다리를 지나고 있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현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이며 인류의 선택에 따라 자연과의 상생 혹은 자멸인지는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차원의 문은 워홀(wormhole)이라고도 불린다. 워홀은 서로 다른 공간을 이어주는 개념이며 구멍을 통해 더 빠르게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과 같은 표현이다. 아인슈타인의 로젠다리(Einstein-Rosen bridge)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상대론에서는 학문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안정성 문제가 있거나 실제로 존재하는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⁴⁷⁾

작품의 둥지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피닉스(불사조, phoenix)의 보금자리로 바라보았다. 피닉스는 죽지 않는 새로서 500년을 주기로 자신을 불에 태우고 그 재 안에서 부활(born again)을 한다. 이러한 피닉스의 부활을 원초적인 ‘근원의 상징’으로 둥지에 표현하였다.

47) 네이버 지식백과. 워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7177&cid=60217&categoryId=60217> (2022.10.01. 검색)

[작품 8]

whirlpool 160 x 150 x 200 (cm) 2020



[표-33] whirlpool 상세이미지



- Material : 철(iron)
- Process : 그로테스크 기법, 오브제 기법
- Symbol : 혼돈

위 [작품 8] <whirlpool>의 ‘whirlpool’은 ‘소용돌이’를 말한다. 작품에서 해룡은 소용돌이의 상단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하단의 거석은 올려다보고 있는 인류를 표현하였다. 작품의 발판이 되는 배경은 철판에 무늬가 있는 오브제를 이용하였다. 자연의 신비함과 존엄성을 표현하기 위해 따로 그로테스크하게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이 그로테스크함은 철근에 열을 반복적으로 가해 열에 의해 녹은 철물 방울로 제작한다. 철물은 떨어져서 바닥에 튀게 되고 흩어진 철물 파편들은 온도에 의해 식으면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즉흥적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현시대는 혼돈의 소용돌이이며 그 위에는 대자연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소용돌이는 거세지고 있으며 자칫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인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례적인 기후변화와 코로나-19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았다. 이러한 재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인류는 조속히 반성하고 각성하여 변혁해야 할 시점이다.

작품의 소용돌이는 신화적으로 ‘카리브디스(charybdis)’를 상징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카리브디스는 포세이돈과 가이아의 첫째 딸이며 포세이돈 다음으로 바다를 통제하는 신이다. 작중에서 제우스는 카리브디스에게 무엇이든지 먹어도 토하는 벌을 내렸다. 그리하여 카리브디스는 배고플 때 바닷물을 먹어치우고 다시 뱉어내면서 심한 폭풍이나 소용돌이가 발생하여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다. 카리브디스는 스킨라와 함께 작중에서 등장하는데, 이 둘은 모두 바다의 괴수로 묘사되며 거대한 용이나 거센 소용돌이로 묘사되기도 한다. 오디세우스는 항로를 정해야 할 때 카리브디스와 스킨라 중에서 골라야 했는데 이러한 신화적 내용을 현대에 와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신화적 내용과 인류가 겪고 있는 재해를 바라보고 소용돌이를 인류가 헤쳐나가야 할 소용돌이로 표현하였다.

제5장 결론

용접조각 재료의 유익한 점과 모험적 실험적 다양한 표현기법 시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용접조각의 다양한 표현기법 확장에 비중을 두고 폐고철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환경보호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연구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문헌, 인터넷 등을 토대로 탐색하였다. 작품 콘셉트는 ‘환경수호’이며 이는 자연환경에 대한 현대인의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신화적 배경과 상징성을 담아 용접조각으로 창작하였다.

조각이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의 작가와 작품, 시대적 변천을 근대와 현대로 분류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신화와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에서는 조각 개념·용접조각의 이해와 용접조각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 사용되는 용접의 종류와 국내·외의 용접조각의 태동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감성을 알 수 있었다. 용접조각 표현기법은 작가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용접조각 표현기법으로 오브제·앗상블라주·열변형식기법·단조 기법·그로테스크 기법을 살펴보았다. 특히, 오브제·앗상블라주 기법은 미술사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다양한 사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학문적인 접근은 연구자의 표현기법에 대한 근원을 파악하고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감정을 작품으로 승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앞서 살펴본 용접조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에 내재된 의미를 환경수호에 대한 상징과 신화적 배경에 대입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통계상의 실질적인 치수와 보도된 내용을 통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작품에 내재하고 있는 상징을 부여하여 창작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용접조각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표현기법을 살펴보고 환경 수호에 대한 상징과 신화적 배경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환경의 상징성과 신화적 이야기를 조형적으로 부여하는 반구상적인 작품들로 선, 면 그리고 표현기법이 주는 유기적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형태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의 소재로 철을 이용하였다. 철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발전의 초석이 되는 재료로서 어두우며 차가운 산업화와 부식되어 사라져가는 황폐된 자연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환경 수호의 이미지를 해양생물에 부여하여 자연보호와 환경 오염에 진부함을 느끼는 현대인에게 환경 혁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학문적 의의는 환경 수호의 상징을 표현하고 현대인들이 각성할 수 있는 조형 언어로 표현한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양한 재료의 접근성보다는 철이라는 소재의 단일 접근성과 철의 산화작용에 의한 부식, 무게로 인한 운반이 어려운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후학들이 용접조각의 근원을 탐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현대 미술에 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고 용접조각 제작 향상에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2007, 국립국어원.
- 오브제.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윌리엄 터커 저, 엄태정 역. 『조각의 언어』, 서광사, 1958.
- 유성웅 저. 『세계조각사』, 한국색채문화사, 1993.
- Hegel, George W.F. 두행숙 옮김, 『헤겔의 미학강의 3』, 은행나무, 2010.
-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

2. 논문

- 김복주. “세자르 발다치니(C´esar Baldaccini)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2004,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순. “1950 - 1960년대 용접조각”, 200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Vol.18.
- 김이순.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전후의 용접조각”, 2006, 대한용접접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김이순. “한국 근현대미술에서 ‘조각’ 개념과 그 전”, 2011,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12 No.22.
- 김희주, 강연미. “장신구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 2018, 한국기초조형학회.
- 박효빈. “회화에서 일상적 오브제 연구 : 본인작품 중심으로”, 2012,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승수. “현대조각에서 금속재질을 이용한 표현기법 - 연구자 작품 중심으로”, 2020,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익훈. “현대조각에 나타난 반복, 집적, 증식의 표현기법 연구 : 연구자 작품 중심으로”, 200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숙. “부정(否定)과 실험정신으로 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예술세계”, 2007,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존 체임벌린(John Chamberlain)의 조각에 나타난 뉴 리얼리스트적 특성 연구”,

201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홍우, 엄혁용. “현대조각에 나타난 차용과 심미적 표현 연구 - 클래스올덴버그(Claes Oldenburg)와 전망을 중심으로”, 2021, 한국기초조형학회, Vol.22 No.3.

정나영. “안토니 카로의 조각에 나타난 공간 개념 연구”, 2012,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진아. “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오브제의 물질성에서 비물질성으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 사운드아트에서 드러나는 비물질적 오브제를 중심으로”, 2016, 한국영상학회.

정효미. “마르셀 뒤샹의 예술세계 연구”, 2012,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용선. “융접조각 표현기법 연구 :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2006,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우영. “철조 기법 연구 : 훌리오 곤잘레스, 데이비드 스미스, 안소니 카로, 에두아르도 칠리다를 중심으로”, 2007,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웹사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A%B0%81>

<https://catcom.tistory.com/12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9273>

<https://namu.wiki/w/%ED%94%84%EB%9D%BC%EC%9D%B4%ED%83%81>

<https://namu.wiki/w/%ED%95%A8%EB%AC%B4%EB%9D%BC%EB%B9%84%20%EB%B2%95%EC%A0%84>

<https://monthlyart.com/encyclopedia/%EC%98%A4%EB%B8%8C%EC%A0%9C/>

<https://dic.daum.net/search.do?q=%EB%8B%A4%EB%8B%A4%EC%9D%B4%EC%A6%98>

<https://blog.daum.net/pgh57/4003965>

<https://dic.daum.net/search.do?q=%EC%97%B4%EB%B3%80%ED%98%95>

<https://dic.daum.net/search.do?q=%ED%8E%B8%EB%A6%B0>

<https://namu.wiki/w/%EA%B7%B8%EB%A1%9C%ED%85%8C%EC%8A%A4%ED%81%AC>

WWFKOREA 지구생명보고서 2020

https://www.wwfkorea.or.kr/bbs/board.php?bo_table=earthlings

해양환경정보포털, <https://www.meis.go.kr/mes/marineLife/protection/species.do>

<https://namu.wiki/w/%ED%8A%B8%EB%A0%88%EB%B9%84%20%EB%B6%84%EC%88%98>
http://fishillust.com/About_Sharks_9_1
<https://ko.wikipedia.org/wiki/%EB%A0%88%EB%B9%84%EC%95%84%ED%83%84>
[https://namu.wiki/w/%EC%9D%B8%EB%A5%98%EC%84%B8\(2022.10.03 검색\)](https://namu.wiki/w/%EC%9D%B8%EB%A5%98%EC%84%B8(2022.10.03%20%EA%B8%A0%88%EB%B9%84%EC%95%84%ED%83%84))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칼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다음에는 어떤 위기?>
<https://ieec.kdi.re.kr/publish/naraView.do?>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7177&cid=60217&categoryId=60217>
<https://dic.daum.net/search.do?q=%EC%A6%89%EB%AC%BC%EC%A0%81>

4. 사진

- 1) 조윤영, “김정숙 조각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조윤영, “김정숙 조각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조윤영, “김정숙 조각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은정, “송영수 용접조각의 조형세계”, 2009,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은정, “송영수 용접조각의 조형세계”, 2009,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은정, “송영수 용접조각의 조형세계”, 2009,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https://m.blog.naver.com/aty9705/222067917148>
- 8) <https://m.blog.naver.com/aty9705/222067917148>
- 9) <https://m.blog.naver.com/aty9705/222067917148>
- 10) <http://chungwoo.egloos.com/4158304>
- 1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mh700704&logNo=221060399367>
- 12) <http://ysinews.com/front/news/view.do?articleId=26398>
- 13)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wsb2012&logNo=130152981110>
- 1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wsb2012&logNo=130152981110>
- 15)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525>
- 16) <https://www.artsy.net/artwork/pablo-picasso-she-goat>

- 17) https://fr.wikipedia.org/wiki/Chicago_Picasso#/media/Fichier:2004-09-07_1800x2400_chicago_picasso.jpg
- 18) <https://www.kice.re.kr/boardCnts/fileDown.do?fileSeq=b654267b82305125b9e06c8e6e441c20>
- 19) <http://www.all-art.org/Architecture/24-7.htm>
- 20) 홍우영, “철조 기법 연구: 홀리오 곤잘레스, 데이비드 스미스, 안소니 카로, 에두아르도 칠리다를 중심으로”, 2007,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https://www.guggenheim.org/artwork/1511>
- 22) <https://www.mutualart.com/Artwork/Compression/C387BA8496F10242>
- 23) 박경주(2021), “파운드 오브제(Found object)를 융복합한 작품연구:매체의 활용방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도예유리디자인전공 부교수, Vol. 19. No. 4, pp. 227-233
- 24) <https://m.blog.naver.com/joeuning/221720199734>
- 25) <https://www.artsy.net/artwork/david-smith-1906-1965-the-royal-bird>
- 26)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052>
- 27) [https://en.wikipedia.org/wiki/Twenty_Four_Hours_\(sculpture\)](https://en.wikipedia.org/wiki/Twenty_Four_Hours_(sculpture))
- 28) <https://www.pirihalasz.com/blog/archives/2013-11>
- 29)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child-s-tower-room-installation-view-anthony-caro/twFU7MAyJTC6w>
- 30) <https://www.centrepompidou.fr/en/ressources/oeuvre/cGEBebA>
- 31) <https://www.wikiart.org/en/pablo-picasso/bottle-of-vieux-marc-glass-and-newspaper-1913>
- 32) 김재원, “재활용 오브제를 활용한 업 사이클(Up-cycle) 입체표현연구 : 중학교 미술교육 중심”, 2018,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fountain/1QGek4Lw6B5sBQ?hl=ko>
- 34) <http://news.imaeil.com/page/view/2010090208461391335>
- 35) <https://brunch.co.kr/@artsai/97>
- 36) <https://www.christies.com/en/lot/lot-5946566>
- 3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32034>
- 38) <https://m.khan.co.kr/article/200610291759421#c2b>
- 39) http://artnlifegr.com/EricSong_Super

- 40) http://artnlifegr.com/EricSong_Super
- 41) http://artnlifegr.com/EricSong_Super
- 42) https://www.thinkzon.com/share_report/1102628
- 43) 유미숙, “부정(否定)과 실험정신으로 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예술세계”, 2007,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4) <https://collection.mmk.art/en/nc/werkdetailseite/?werk=1981%2F5>
- 45) <https://www.diaart.org/collection/collection/chamberlain-john-manitou-1959-1980-515>
- 46) <http://www.artnet.com/artists/john-chamberlain/nutcracker-K7Ag2sXJgVQ7bLRuN2OwoQ2>
- 47) http://www.daljin.com/2004/_main/exhibition/monthly/monthly.detail.php?code=E18925&dal=f8cd8932b7ebff064f8d7cbac450b656
- 48) http://www.daljin.com/2004/_main/exhibition/monthly/monthly.detail.php?code=E18925&dal=f8cd8932b7ebff064f8d7cbac450b656
- 49) http://www.daljin.com/2004/_main/exhibition/monthly/monthly.detail.php?code=E18925&dal=f8cd8932b7ebff064f8d7cbac450b656
- 50)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venice87&logNo=120135255486>
- 51)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5>
- 52)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venice87&logNo=120181338341>
- 53) <http://www.lsg239.com/index.php?/news/news/>
- 54) <http://www.lsg239.com/index.php?/news/news/>
- 55) <http://www.lsg239.com/index.php?/news/new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용접조각의 다양한 표현기법 확장에 비중을 두고 폐고철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환경보호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용접조각의 표현기법을 탐색하기 위하여 미술사조, 작품형성에 대한 시대적 배경, 국내·외 작가의 표현기법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연구자 작품의 표현기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표현기법에 있어서 오브제, 앗상블라주, 단조기법, 열변형식 기법, 그로테스크 기법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오브제와 앗상블라주는 전통 평면 회화의 기반에서 발생한 사조이지만 순수미술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용접조각은 근대미술에서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에 사용되는 용접의 종류와 국내·외 용접조각 태동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작가의 내면의 잠재된 감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작가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 용접조각 표현기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위와 같이 표현기법에 있어 오브제, 앗상블라주는 다양한 사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용접조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에 내재된 의미의 콘셉트를 환경 수호로 정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상징성은 신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제작을 하였다. 창작 작품에 주류를 이루는 표현기법으로 단조 기법과 그로테스크 기법을 활용했다. 특히, 단조 기법은 작품의 곡선미와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였다. 그리고 그로테스크 기법은 몽환적, 이질감과 즉흥적인 느낌을 작품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풍성하고 이상적인 기법이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은 용접조각과 순수미술 기법을 융합하여 용접조각의 표현기법을 시도한 점이다. 두 번째로는 용접조각을 이용하여 환경 수호의 상징을 표현하고 현대인이 각성할 수 있는 조형물로 시도한 점이다. 실무적 시사점은 용접조각에 있어서 철이라는 소재의 접근성과 효용성, 견고함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회화에서 파생된 표현기법을 용접조각에 활용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양한 재료의 접근성보다는 철이라는 소재의 단일 접근성과 철의 산화작용에 의한 부식, 무게로 인한 운반이 어려운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융접조각의 표현기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시도들이 실험적으로 모색하여 다채로운 표현기법이 확장됨으로써 후학들에게 융접조각의 근원을 탐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 향후 작품제작 재료에 있어 철의 소재를 넘어 영상, 홀로그램, AI 탑재 등을 융합하여 작품제작을 진행된다면 융접조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